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

PROGRAM

일시 : 2022. 6. 29(수) /13:40~17:30

시간	주제 및 발표 내용	발표 및 좌장
13:40~14:00	개회사	한 훈 통계청장
	축사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 준 한국삶의질학회장
		박원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세션1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	좌장 : 한 준 교수 (한국삶의질학회)
14:00~15:40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과 활용	심수진 사무관 / 남상민 주무관 (통계개발원)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유성렬 교수 (백석대학교) 남상민 주무관 (통계개발원)
	행복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 적용 방안	홍성호 교수 (공주대학교)
	삶의 질과 재정사업간 연계가능성	김선옥 / 장윤정 부연구위원 (한국재정정보원)
	종합 토론 - 송준헌 사무국장 (사회보장위원회) - 이재경 연구실장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 이희길 과장 (동남지방통계청)
세션2	한국인의 행복 연구	좌장 : 이태진 삶의질연구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50~17:30	누가 행복한가? 주요국과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김성아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 북유럽, 중남미, 한국 비교	신혜란 교수 (서울대학교)
	북유럽 복지사회, 베트남, 중남미 국가의 행복 구성	채수홍 교수 (서울대학교)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	이병재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종합 토론 - 최슬기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 허중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 (국회미래연구원)	- 조동훈 교수 (한림대학교) - 최바을 실장 (통계개발원)

CONTENTS

세션1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과 활용 7 심수진 사무관 / 남상민 주무관 (통계개발원)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27 유성렬 교수 (백석대학교) / 남상민 주무관 (통계개발원)	
	행복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 적용 방안 41 홍성효 교수 (공주대학교)	
	삶의 질과 재정사업간 연계가능성 53 김선옥 / 장윤정 부연구위원 (한국재정정보원)	

세션2	한국인의 행복 연구	
	누가 행복한가? 주요국과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65 김성아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89 - 북유럽, 중남미, 한국 비교 신혜란 교수 (서울대학교)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 101 이병재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SSION 1

세션1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과 활용

심수진 사무관 / 남상민 주무관 (통계개발원)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유성렬 교수 (백석대학교) / 남상민 주무관 (통계개발원)

행복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 적용 방안

홍성호 교수 (공주대학교)

삶의 질과 재정사업간 연계가능성

김선옥 / 장윤정 부연구위원 (한국재정정보원)

세션1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과 활용

심수진 사무관 / 남상민 주무관 (통계개발원)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2022.6.29.)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측정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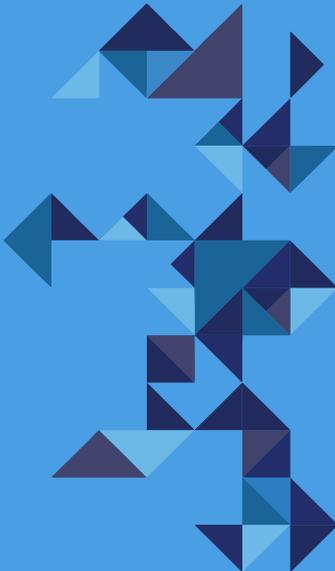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심수진, 남상민



CONTENTS

- I. 배경 및 필요성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III. 측정결과
- IV. 정책적 활용




 통계청
 통계개발원

I

배경 및 필요성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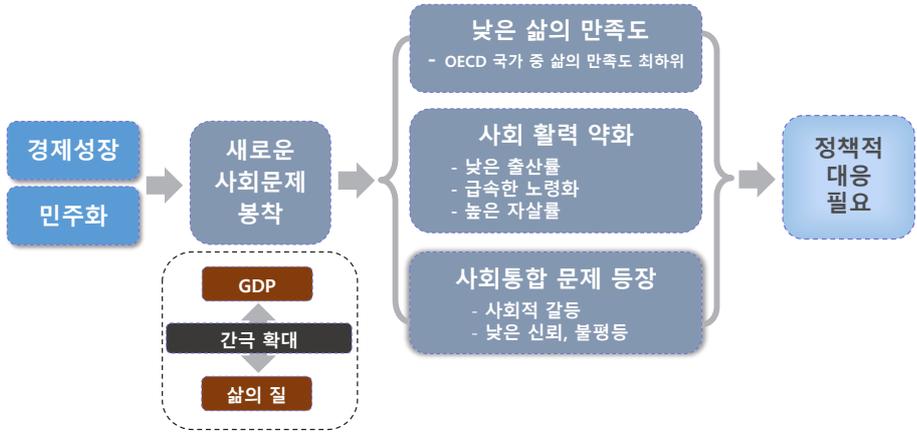
3



I 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내 상황



```

    graph LR
      A[경제성장] --> B[새로운 사회문제 봉착]
      C[민주화] --> B
      B --> D[낮은 삶의 만족도]
      B --> E[사회 활력 약화]
      B --> F[사회통합 문제 등장]
      D --- G[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 최하위]
      E --- H[낮은 출산률, 급속한 노령화, 높은 자살률]
      F --- I[사회적 갈등, 낮은 신뢰, 불평등]
      B --> J[정책적 대응 필요]
      K[GDP] --> L[간극 확대]
      L --> M[삶의 질]
  
```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4



I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적 변화 : 국제적 웰빙 측정 확산

1) 국제적 관심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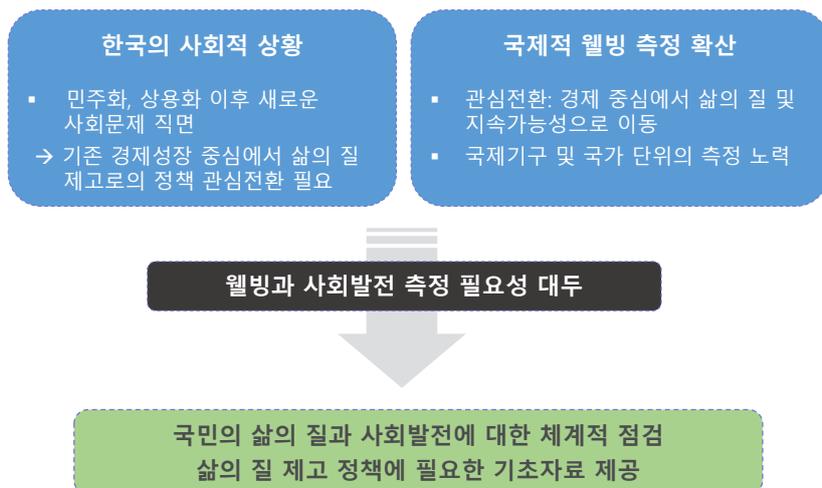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경제중심에서 삶의 질과 환경 중시로 전환
-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대두
- 경제 중심의 GDP 한계 극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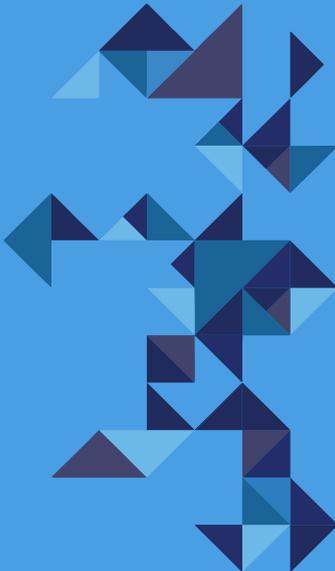
2) 국제 및 국가단위의 측정노력

- OECD 글로벌 프로젝트('04년) → 제3차 부산포럼('09년) → How's Life 보고서 발간('11년)
-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09년)
- UN 세계행복보고서('12년)
- 국가단위 측정 사례



I 배경 및 필요성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7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추진경과

'11년
프레임워크 개발

- 공동연구용역
- 9개 영역, 84개 지표

'12년
신규지표 개발

-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 사회통합실태조사

'13년
전문가 의견수렴

-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 12개 영역, 83개 지표

'14년
지표 서비스
지표검토위원회

- 홈페이지 서비스
- 12개 영역, 81개 지표

'19년
지표세분화

- 청소년/고령자 세분화
- 지역 공통항목 개발(21개)

'18년
지표체계 개편

- 국민의견수렴 결과 반영
- 타 지표들과의 통일성 유지
- 11개 영역, 71개 지표

'17년
국제회의
국민의견수렴

- 주제: GDP plus Beyond
- 네이버 지식iN, 국민생각함

'15년
제1회 포럼 개최

- 작성결과 공유 확산
- 주제: 국민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과제

'20년
지역사회조사 실시
핵심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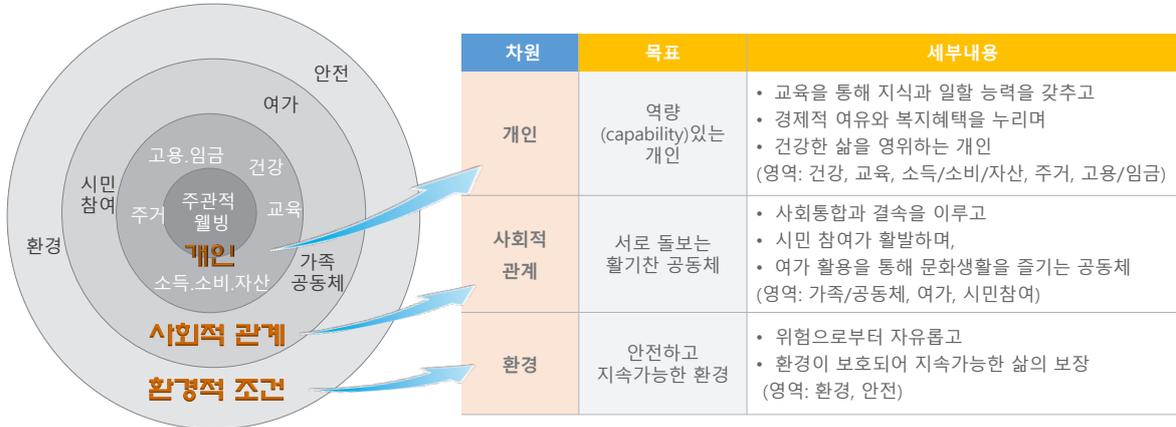
- 지역사회조사에 공통항목 반영(11개)
- 국민생각함 의견 반영하여 핵심지표 선정(11개 지표)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8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3개 차원, 11개 영역 구성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측정지표 : 11개 영역, 71개 지표

영역	객관지표 (42)	주관지표 (29)
가족·공동체 (3, 2)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가족관계만족도(+), 지역사회소속감(+)
건강 (5, 2)	기대수명(+), 건강수명(+),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 (3, 3)	유아교육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졸업자 취업률(+)	교육비 부담도(-), 학교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고용·임금 (5, 1)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5, 2)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가계부채비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 (4, 2)	여가시간(+), 1인당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문화여가 지출률(+)	여가생활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주거 (5, 1)	통근시간(-),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 주택임대료 비율(-), 자가점유가구 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3, 6)	미세먼지(PM2.5) 농도(-), 농어촌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면적(+)	대기질만족도(+), 수질만족도(+), 소음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안전 (7, 2)	가해에 의한 사망률(-), 범죄피해율(-), 산재 사망률(-), 화재 사망자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사회안전 인식(+), 야간보행 안전도(+)
시민참여 (2, 5)	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정치적 역량감(+), 부패인식지수(+), 기관신뢰도(+), 시민의식(+), 대인신뢰도(+)
주관적 웰빙 (0, 3)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지표의 최근 변화추세

	개선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동일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 동일 $X_t - X_{t-1} = 0$
	악화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영역별 핵심지표 : 19개

영역	핵심지표
가족-공동체	사회적 고립도
건강	기대수명, 자살률
교육	학교생활 만족도
고용-임금	고용률, 실업률
소득-소비-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상대적 빈곤율
여가	여가시간, 여가생활 만족도

영역	핵심지표
주거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 주택임대료 비율
환경	미세먼지(PM _{2.5}) 농도, 수질만족도
안전	야간보행 안전도, 산재 사망률,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시민참여	부패인식지수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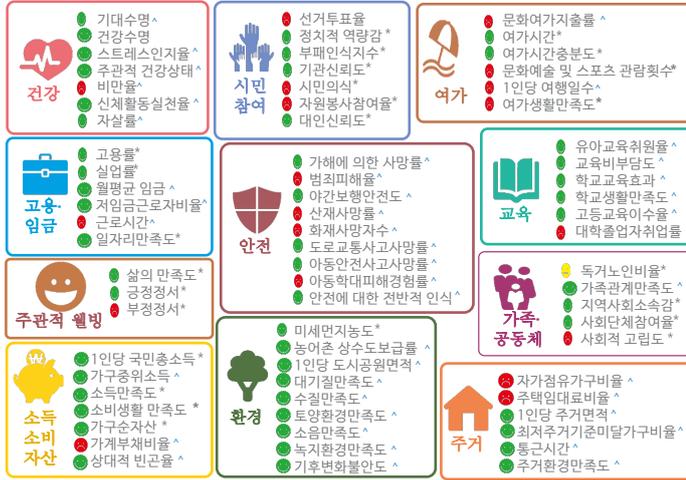
측정 결과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12

III 측정결과



지표상황판 : '22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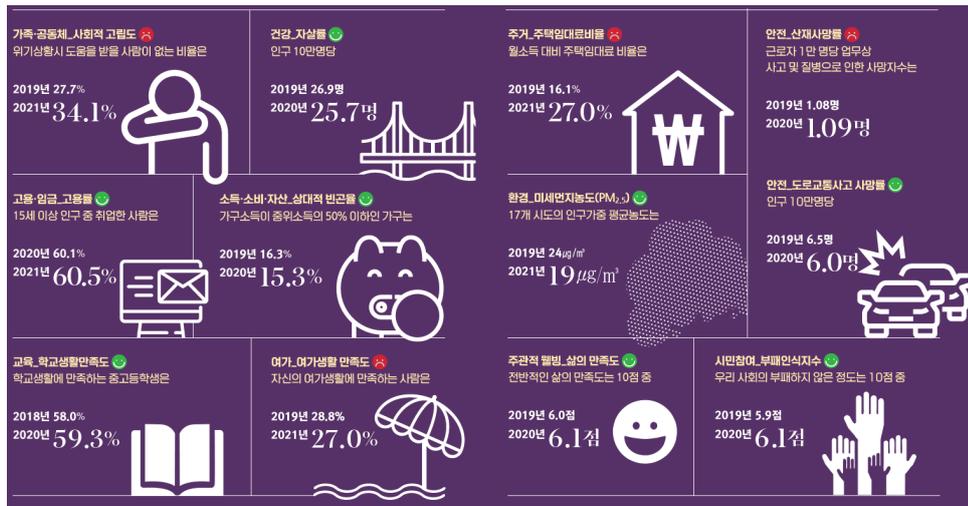


주 1) ● 개선, ● 악화, ● 동일
 2) * 표시는 2021년 값 기준(25개)
 ▲ 표시는 2020년 값 기준(44개)

III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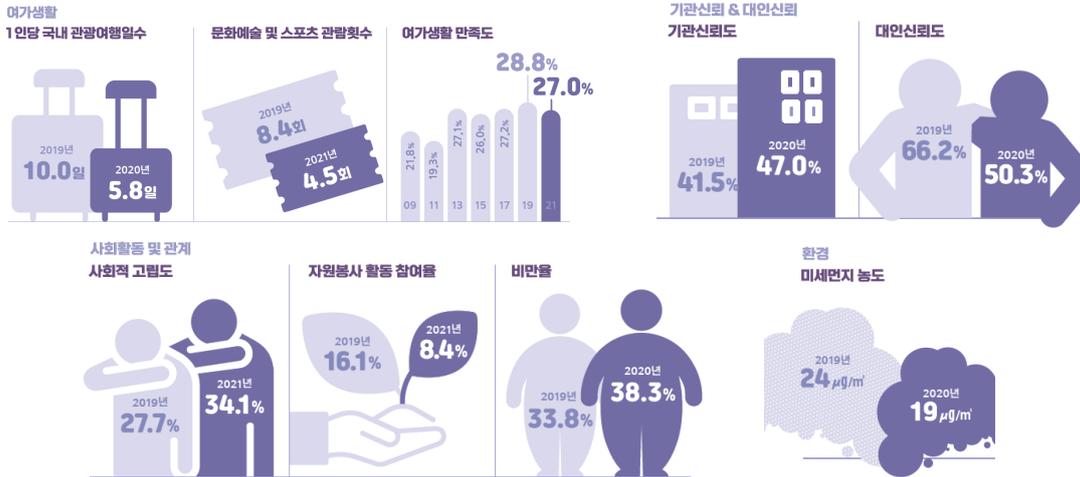
핵심지표



III 측정결과



▶ 코로나19와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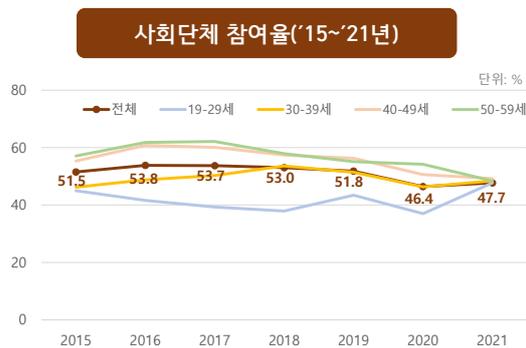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15

III 측정결과



▶ 국민 삶의 질 2021 : 가족/공동체 영역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각각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의 비율임
 2)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웃이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2) 만 19세 이상 대상

- 코로나19 시기인 '20년 감소하였다가 '21년 소폭 회복
- 19-29세 연령대만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함

- 코로나19 시기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6.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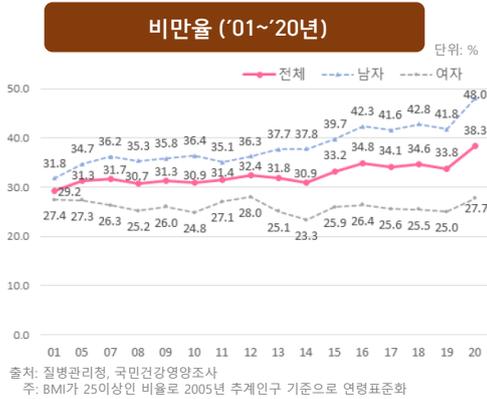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16

III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2021 : 건강 영역



- '20년 비만율은 38.3%로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
- 여자보다 남자의 증가폭이 더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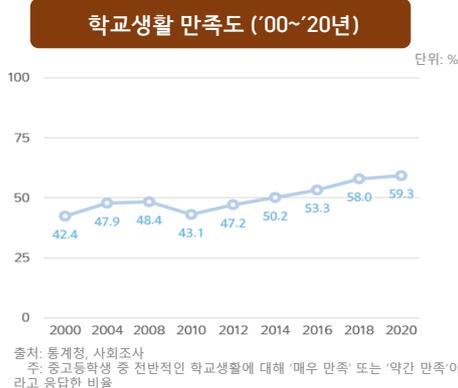


-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전년대비 비만율 증가폭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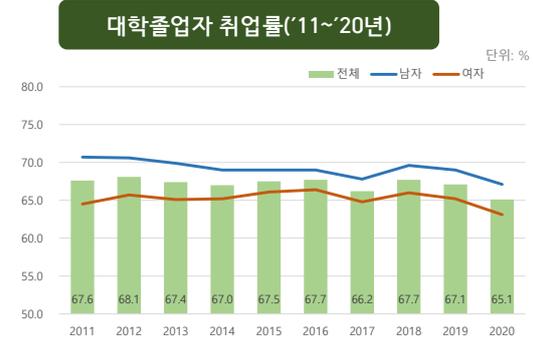
III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2021 : 교육 영역



-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년에도 '18년보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소폭 증가



- '20년 취업률은 65.1%로 전년대비 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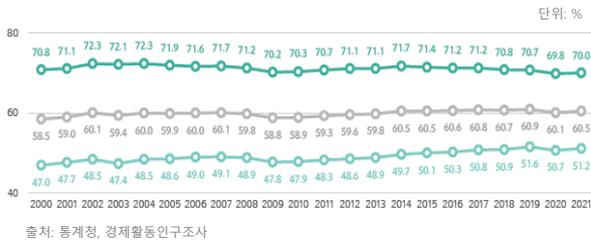


III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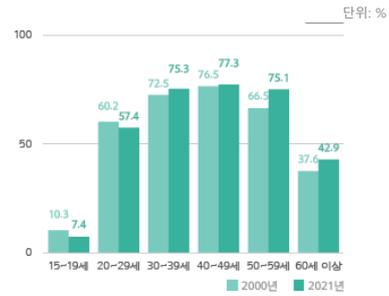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2021 : 고용.임금 영역

고용률 ('00~'21년)



- 코로나19 시기 고용률 감소
- '20년에 비해 '21년 소폭 증가
- 남자 고용률은 '00년 이후 처음으로 70% 미만으로 낮아짐

연령대별 고용률 ('00년, '21년)



- 지난 20년간 50대 이상의 고용률은 증가한 반면,
- 20대 이하의 고용률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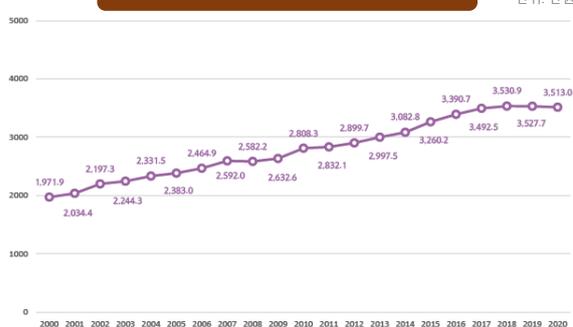


III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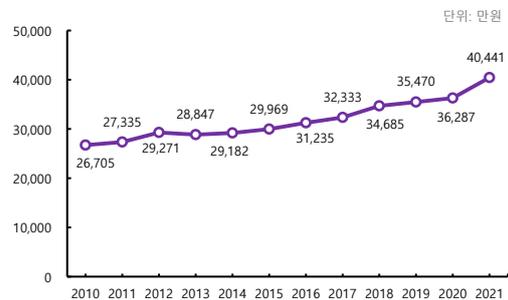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2021 : 소득.소비.자산 영역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00~'20년)



- 1인당 국민총소득은 '08년은 제외하면 증가추세이나
- '19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년에도 감소(3513만원)

가구순자산 ('10~'21년)



- 실질 가구순자산은 증가추세
- '21년 증가폭이 다른 해에 비해 크게 나타남

III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2021 : 여가 영역



-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 코로나19 시기 여가시간이 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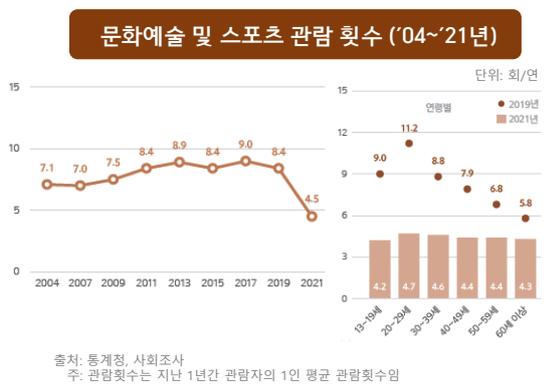


- 1인당 여행일수는 코로나19 시기에 절반 가량 감소
- 70세 이상, 15-19세, 60-69세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폭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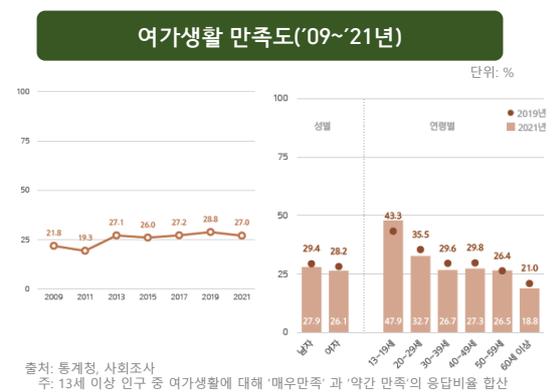
III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2021 : 여가 영역



- 관람횟수는 코로나19 시기 절반가량 감소
- 연령대별로 감소폭에 차이가 있어 연령대별 차이가 줄어듦



- 여가생활만족도는 '21년 소폭으로 감소
- 13-19세의 경우 여가생활만족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



III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2021 : 환경 영역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 응답 비율

- 다른 환경분야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 '18년에 비해 '20년 9.6%p 증가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 17개 시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PM_{2.5})의 인구가중평균임

- 코로나 19 시기인 '20~'21년 미세먼지 농도 감소



III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2021 : 안전 영역



세부항목별 안전과 불안 인식('18년, '20년)

항목	2018년			2020년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국가안보	31.1	35.6	33.3	43.5	32.0	24.5
자연재해	22.8	39.6	37.6	37.0	40.1	22.9
폭발 및 시설	23.9	43.3	32.8	36.3	42.2	21.5
교통사고	13.1	39.2	47.6	21.7	43.3	35.0
화재	20.9	48.0	31.1	24.2	43.6	32.2
약거리	25.4	43.4	31.1	41.6	40.3	18.1
사망안보	37.8	43.7	18.5	51.3	36.1	12.6
경제보안	17.5	40.0	42.5	24.4	36.3	39.3
개인정보유출	0.0	15.2	84.8	30.1	54.7	15.2
신종질병	16.7	40.5	42.8	22.5	24.5	52.9
범죄	17.2	32.0	50.8	26.8	33.3	39.9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2014년 아동학대 관련 법제정 강화)
-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어 해석상 주의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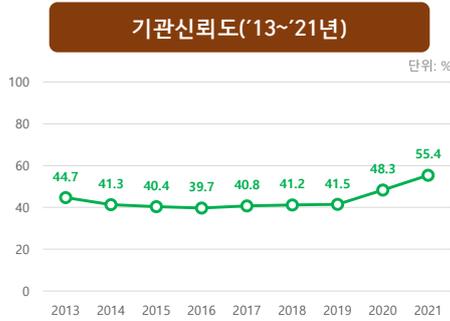
- 전반적인 항목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반면,
-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음



III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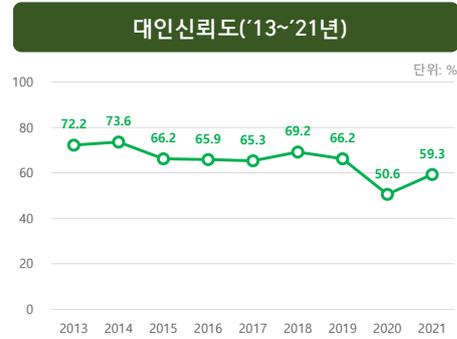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2021 : 시민참여 영역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16개 기관에 대해 '매우 믿을수있다'와 '약간 믿을수 있다'의 응답비율 합산
 2)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만 19-6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 기관신뢰도는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증가 추세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 '매우 믿을수있다'와 '약간 믿을수 있다'의 응답비율 합산
 2)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만 19-6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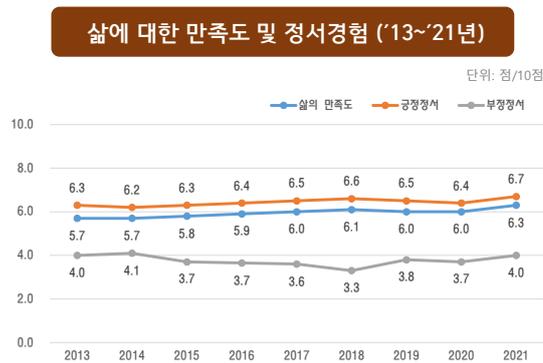
- 코로나19 초기 '20년에 대인신뢰도의 급격한 하락
- '21년 대인신뢰도가 증가하였으나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음



III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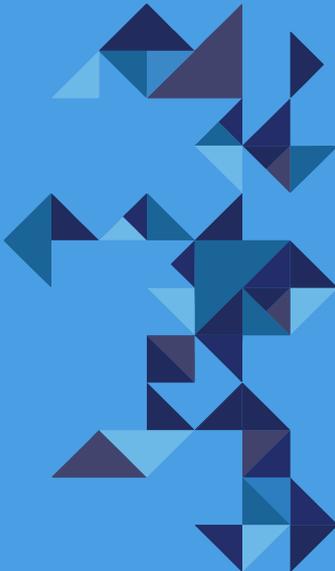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2021 : 주관적 웰빙 영역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만19-6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

-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20년에 정체되었다가 '21년에 증가
- 부정정서의 경우 21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




IV

정책적 활용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7




IV 정책적 활용

➔ 정책적 활용

- ✓ 정책수립 과정에서 웰빙 지표 활용 사례
 - 뉴질랜드 : 웰빙 예산(2019년 5월), 예산 선정과정에서 웰빙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예산법에 의거, 12개 대표지표와 예산을 연계
 정책이 웰빙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현재 추세와 정책 예측을 비교
 - 아이슬란드: 웰빙지표를 근거로 하여 예산안 마련(2020년)
- ✓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질, 행복 증진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정책목표에 반영
- ✓ 인구집단 및 지역별로 세분화된 지표 작성을 통해 정책적 활용도 제고 필요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8

IV 정책적 활용



▶ 측정결과 공유

- 홈페이지(www.index.go.kr/kind)를 통한 분기별 업데이트

지표명	자료	단위	시점	출처
▶ 가계부채비율(다구치분가)	184.2	%	2018	OECD, 'OECD National Accounts' → 자료: OE...
▶ 가구순자산	33,649	만원	2019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집단)', '소비자물...
▶ 가구중위소득	2,756	만원	2018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자물가조사...
▶ 가족관계인족도	96.6	%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가버려 의한 사망률	0.8	명/10만명	2018	통계청, 사망행인통계
▶ 건강수명	73	세	2016	WHO, 'World Health Statistics' → 자료: WHO...
▶ 고등교육이수율	49.0	%	2018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 자료...
▶ 고용률	69.9	%	201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교육비 부담도	64.4	%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근로시간	152.4	시간	2019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자료: ...
▶ 공공장서	6.5	집/10만명	2019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시민사회도	41.5	%	2019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기대수명	82.7	년	2019	통계청, '생명표' → 자료: 통계청, '생명표', 20...
▶ 기후변화 불안도	49.3	%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복지향상 만족도	59.2	%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연간 분석보고서 작성

국민 삶의 질 2019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 삶의 질, 포교세 해년 발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여 매년 1회 10개 지표별은 분석하여 국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를 2014년부터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2018년 자료 기반 5회 처음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 보고서에서는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11개 영역(가계·금융·복지·건강·고용·교육·소득·주거·시민사회·주거·문화·안전·환경·사회통합) 10개 지표에 대한 측정결과와 최근 추세, 시사점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 국민 삶의 질 지표 관련 자료는 국가표준정보포털(index.go.kr/kind)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개별 지표의 상세 수치 및 설명, 출처, 관련 자료 등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상세 관련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업데이트 됩니다.

IV 정책적 활용



▶ 측정결과 공유 : 포럼 개최



IV 정책적 활용



▶ 지표세분화: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구집단 및 지역별 세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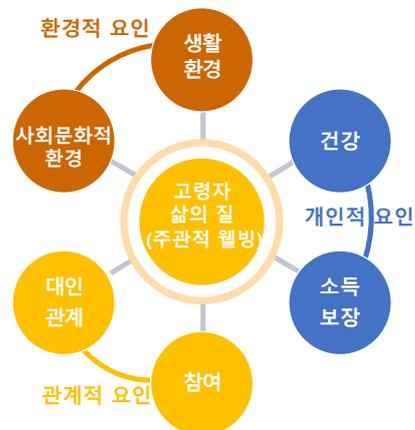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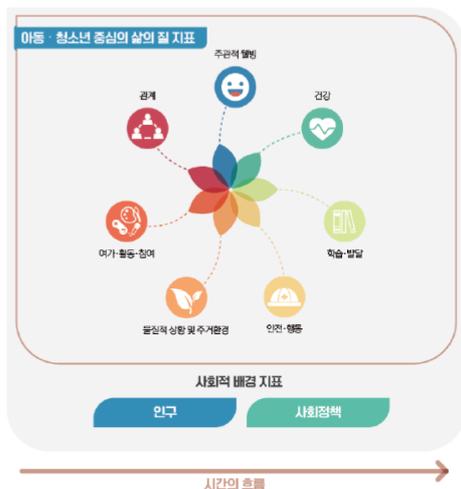
인구집단별 측정 세분화 : 정책대상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인구집단	추진내용	추진경과
아동·청소년 (0-24세)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아동 삶의 질 지표보고서	'18년 연구, '19~'22년 협동연구(경사연) '22년 지표보고서 발간 예정
청년 (19-34세)	청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22년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연구 수행 중
노년기 (65세 이상)	고령자 삶의 질 프레임워크 구축 고령자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	'19~'20년 DB 구축 연구

IV 정책적 활용



▶ 인구집단별 세분화 : 아동청소년, 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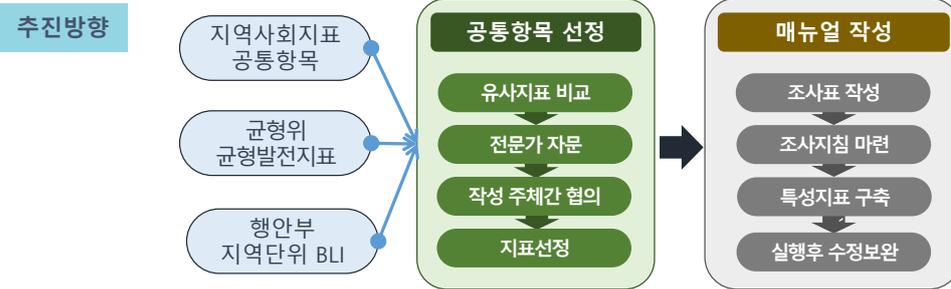
IV 정책적 활용



지역별 세분화 : 지자체 사회조사의 공통항목 실시(2020년~)

기본방향 :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역간 비교가능한 지표(주관적)의 개발 및 비교분석
 지역사회 삶의 질 측정, 지자체/행안부/균형위 의견수렴(2019년)
 지역의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지역간 비교가능성 확보를 통한 자료 구축

조사항목과 주기: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 영역별 20여개 항목을 2년주기로 조사



IV 정책적 활용



지역별 세분화 : 지자체 사회조사의 공통항목

* 삶에 대한 만족도, 가구 월평균 소득은 매년 조사하는 항목

영역	홀수년(12개)	짝수년(11개)
삶에 대한 만족도(1)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1)		의료서비스 만족도
사회통합(5)		일반인에 대한 신뢰, 기관신뢰(선택), 사회적 지원, 공동체의식, 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소득소비자산(3)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만족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가구 월평균 소득
주거와 교통(3)	주거환경 만족도, 교통수단 만족도,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노동(2)	일자리 충분도, 일자리 만족도	
교육(1)	교육환경 만족도	
안전(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안전평가에 대한 평가
환경(1)		환경체감도
문화와 여가(2)		여가활동 만족도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감사합니다

shimsj@korea.kr

세션1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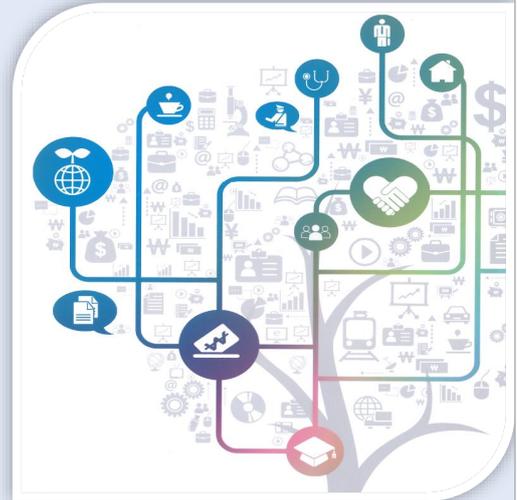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유성렬 교수 (백석대학교)

남상민 주무관 (통계개발원)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유성렬(백석대)
남상민(통계개발원)



CONTENTS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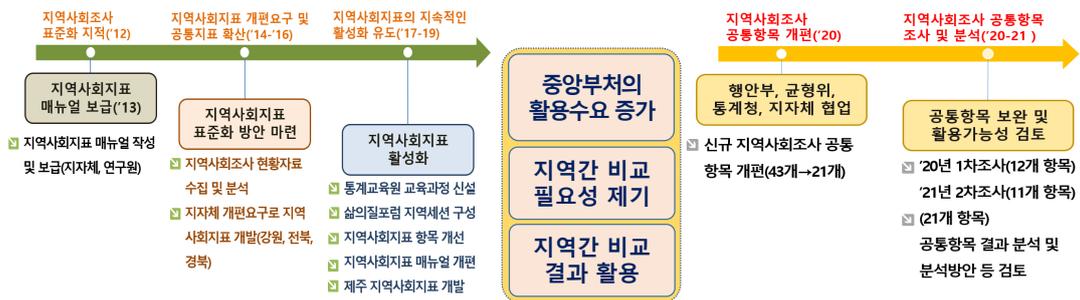
- Ⅰ 연구배경 및 작성방법
- Ⅱ 공통항목 조사 결과
- Ⅲ 공통항목 시군구별 주요 결과
- Ⅳ 지역 삶의 질 분석
- Ⅴ 결론 및 시사점





I. 연구의 배경 및 작성방법

지역사회지표 표준화 추진 → 지역단위 비교가능성 한계 → 환경변화에 따른 공통항목 개편·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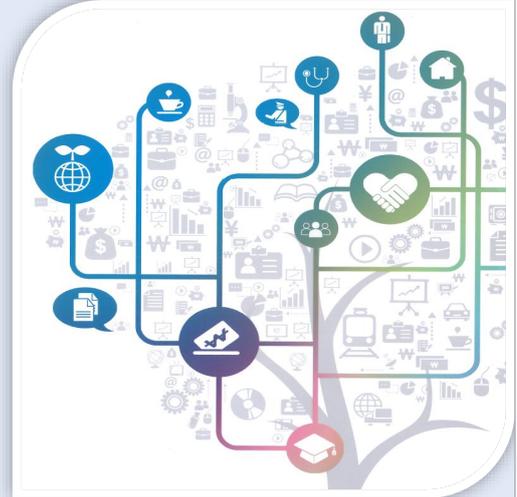


연구범위 및 방법 : 2020년 지역사회조사로 조사된 11개 공통항목에 대해 229개 시군구 대상

- 공통항목별 평균분석을 통한 시군구 비교
- 지역별 특성비교(격차기반 도시화 비교, 군집비교, 행정자료 활용)
- 다층적분석을 통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II

공통항목 조사 결과



II. 공통항목 조사 결과

조사항목

- 2020년 11개 항목으로 기관신뢰(선택)을 제외하면 10개 항목임

<표> 21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영역	출수년(12개)	꼭수년(11개)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의료기관 만족도
사회통합	일반인에 대한 신뢰	일반인에 대한 신뢰
		기관 신뢰(선택)
		사회적 지원
		공동체 의식
소득소비자산	가구 월평균 소득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소득만족도	가구 월평균 소득
주거외교통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주거환경 만족도	
노동	고용수단 만족도	
	지역거주기간 및 청주 의사	
교육	일자리 충분도	
	일자리 만족도	
안전	교육환경 만족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환경		환경재정도
	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와 여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표> 2020년 11개 조사항목

영역	조사항목	설명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11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한다)	
	생활 만족도	11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한다)	
	행복도	11점 척도(한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 자주 행복함)	
	걱정도	11점 척도(한번도 걱정하지 않았다 ~ 자주 걱정함)	
건강	의료기관 만족도	5점 척도(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일반인에 대한 신뢰	4점 척도(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완전히 신뢰한다)	
사회통합	사회적 지원	있다/없다	
	공동체 의식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일에 대해 이야기할 서로 돕는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모임에 참석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임신 출산 육아 복지 취약계층 복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잘 모르겠다)	
소득소비자산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이하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밤에 혼자 있을때 밤에 글룩글룩 걸을때	5점 척도(전혀 두렵지 않다 ~ 매우 두렵다)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자연재해	
		건축물	
		교통사고	
		화재	
		역거리	5점 척도(매우 불안 ~ 매우 안전)
		정보보안	
		감염병	
범죄위험			
환경	환경 체감도	전반적 사회안전	
		대기	
		수질	
		토양	5점 척도(매우 나쁘다 ~ 매우 좋다)
	소음, 진동		
	특지환경		



II. 공통항목 조사 결과

지역사회조사 개요

- 지역별로 사회조사를 통해 공통항목을 조사
-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 조사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비표본오차 발생
- 2020년 공통항목 조사 시 특이점

√ 코로나 영향

- 충북은 조사진행의 어려움으로 축소조사(가구주만 조사)
- 대구, 강원 등 코로나 여파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
- 전체적으로 비대면조사 비율 증가

√ 경기도의 공통항목 불참

- 경기도의 '20년 조사는 균형위에서 조사(3,000명)
- 표본규모, 조사방법 등 상이

<표> 지역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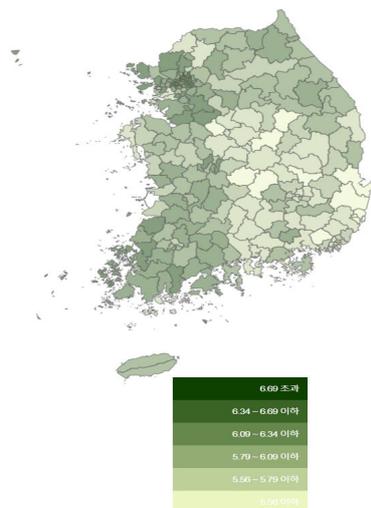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주체
서울	20,000가구 (15세이상)	층화집락추출법	09.01~09.31	방문면접 인터넛조사 병행	용역사
부산	17,860가구 (15세이상)	집락추출	08.26~09.15	방문면접 인터넛조사 병행	부산
대구	8,400가구 (15세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08.20~09.10	방문면접, 인터넛조사 병행	대구
인천	6,000가구 (13세 이상)	중화 2단 집락추출법	11.19~12.10	방문면접, 인터넛조사 병행	용역사
광주	4,905가구 (15세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방법	08.25~09.11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광주
대전	5,000가구 (15세 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방법	08.19~10.08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용역사
울산	3,820가구 (15세이상)	중화 2단 집락추출법	08.26~09.08	방문면접, 인터넛조사 병행	울산
세종	1,800가구 (13세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08.20~09.07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용역사
경기	3,100명 (19세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12.08~01.07	전화면접	용역사
강원	15,800 (13세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08.19~09.07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강원
충북	11,600가구 (13세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08.26~09.09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충북
충남	15,000가구 (15세이상)	중화 2단 집락추출법	08.25~09.17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용역사
전북	13,515가구 (15세 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08.19~09.07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전북
전남	19,116가구 (15세 이상)	중화 2단 집락추출법	08.21~09.02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전남
경북	20,289가구 (15세 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08.21~09.04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경북
경남	15,000가구 (15세 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08.20~09.08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경남
제주	3,000가구 (15세 이상)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08.04~08.31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용역사



II. 공통항목 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

<그림> 시군구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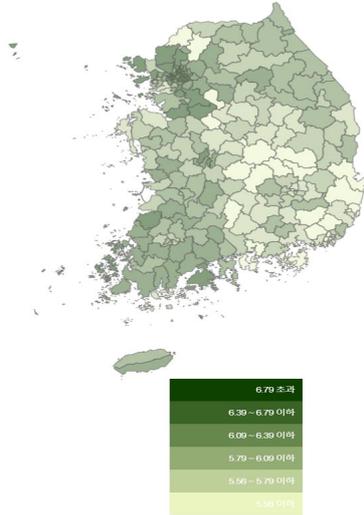
- (지표정의)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11점 척도로 조사
-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만족도가 높고, 경상도 지역보다는 전라도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시>구>군 순임)

II. 공통항목 조사 결과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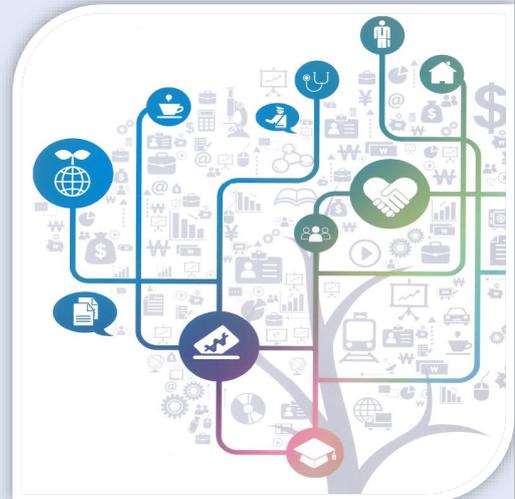
<그림> 시군구별 평균값



- (지표정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시군구)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11점 척도 조사
-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만족도가 높고, 경상도 지역보다는 전라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시>구>군 순임)

III

공통항목 시군구별
주요결과





III. 공통항목 시군구별 주요 결과

작성방법

• 지역간 및 항목간 229개 원자료를 스케일 조정으로 표준화(항목간 척도 차이로 표준화 필요)

1) 양의 성격을 지니는 항목 : $\hat{x}_i = \frac{x_i - \min(x)}{\max(x) - \min(x)} \times 10$

2) 음의 성격을 지니는 항목* : $\check{x}_i = \frac{\max(x) - x_i}{\max(x) - \min(x)} \times 10$ * 걱정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 공통항목의 경우, 하나의 평균값 적용

- 공동체 의식,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환경체감도

• 전국, 시, 군, 구 등의 자료산출은 2020년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여 가중평균 적용

- 지역별로 가중값 작성방법 등의 차이로, 전국, 시, 군, 구 등의 값을 시산시 2020년 주민등록 인구 가중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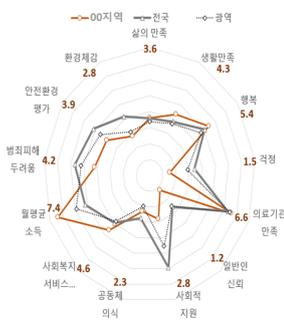


III. 공통항목 시군구별 주요 결과

00지역의 시군구별 주요 결과

√ (00지역) 월평균 소득, 의료기관 만족도, 행복, 생활만족도,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나,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사회적 지원, 환경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취약

<그림> 00의 사회조사 공통항목 비교



<표> 00과 전국, 광역 차이

항목	차이	
	00-전국	00-광역
삶의 만족도	3.6	- 0.2
생활 만족도	4.3	0.5
행복도	5.4	0.3
걱정도	1.5	-1.9
의료기관 만족도	6.6	0.3
일반인에 대한 신뢰	1.2	-1.4
사회적 지원	2.8	-3.1
공동체 의식	2.3	-0.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4.6	0.6
월평균 가구소득	7.4	2.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4.2	-1.5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	3.9	-1.2
환경 체감도	2.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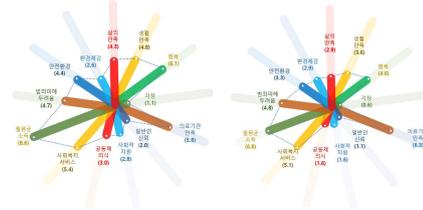
주 : 2020년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재가공(스케일 재조정, 0~10점) 한 값임

√ (전국과 비교) 월평균 소득, 의료기관 만족도, 행복의 순으로 전국보다 높으며, 사회적지원, 걱정,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의 순으로 낮음

√ (광역과 비교) 월평균 소득, 사회복지서비스 만족, 행복, 생활만족, 공동체 의식 순으로 높고, 사회적 지원, 일반인에 대한 신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낮음

√ (최상위 및 최하위 지역 비교) 00지역과 00지역은 항목별 비슷한 유형을 보였고, 00구가 전체적으로 만족수준이 높음

<00지역 00시군구> <00지역 00시군구>



III. 공통항목 시군구별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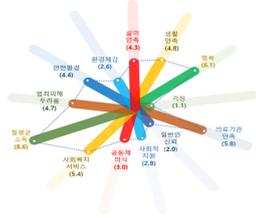


00지역 상위 00시군구

<00지역-00시군구>

00지역 00시군구의 공통항목 결과

- 월평균 가구소득, 행복도, 의료기관 만족도 등은 상대적으로 높음
- 걱정도, 일반인에 대한 신뢰, 환경 체감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00 VS 시군구지역 간 비교

- [00지역 전체평균 비교] 월평균 가구소득, 일반인에 대한 신뢰, 등은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기관 만족도, 걱정도는 낮음
- [00시군구지역 전체평균 비교] 월평균 소득,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등은 높으나, 걱정도, 사회적 지원, 의료기관 만족도 등은 낮았음



유사지역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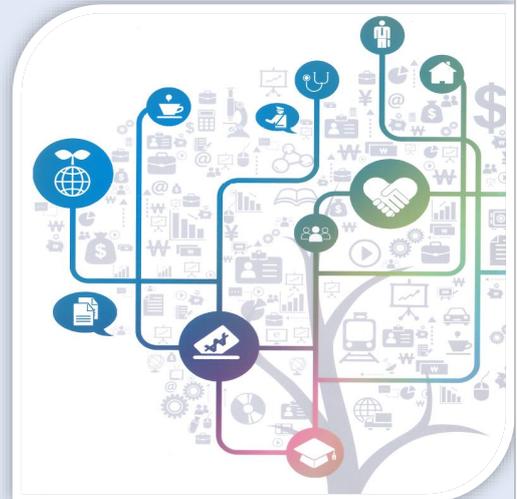
- 00은 00구(00), 00시(충남)와 전체평균에서 유사
- 00는 월평균 가구소득,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00구, 00시는 의료기관 만족도가 높음

<전체평균으로 비교한 유사지역>

	살의 만족	생활 만족	행복	걱정	의료 만족	일반인 신뢰	사회적 지원	공동체 인식	사회복지 서비스	월평균 가구소득	병원/약국 두려움	사생활 평가	환경 체감도
00	4.3	4.8	6.1	1.1	5.8	2.0	2.8	3.0	5.4	8.6	4.7	4.4	2.6
00구 (충남)	3.3	3.5	4.9	1.4	6.8	0.5	3.3	2.6	4.8	6.3	3.6	3.9	3.5
00시 (충남)	3.5	3.5	5.2	3.6	6.6	1.8	4.7	2.5	3.6	5.3	5.8	3.4	4.3

IV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V.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 분석방법

□ 분석자료: 8개 광역시도의 87개 시군구 자료 142,293명의 설문응답 자료를 활용

□ 분석기법: 개인수준과 시군구 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다층모형 분석

• 무조건 모형

$$y_{ij} = \beta_{0j} + \epsilon_{ij}$$

$$\beta_{0j} = \gamma_{00} + \mu_{0j}$$

$$y_{ij} = \gamma_{00} + \mu_{0j} + \epsilon_{ij}$$

• 1단계 : 지역사회조사의 응답자인

개인 수준 변수 투입

$$y_{ij} = \beta_{0j} + \beta_{1j}X_{ij}^1 + \dots + \beta_{kj}X_{ij}^k + \epsilon_{ij}$$

$$\beta_{0j} = \gamma_{00} + \mu_{0j}$$

$$\beta_{1j} = \gamma_{10}$$

⋮

$$\beta_{kj} = \gamma_{kj}$$

$$y_{ij} = \gamma_{00} + \gamma_{10}X_{ij}^1 + \dots + \gamma_{k0}X_{ij}^k + \mu_{0j} + \epsilon_{ij}$$

• 2단계 : 개인수준 변수 및 시군구 수준 변수 투입

$$y_{ij} = \beta_{0j} + \beta_{1j}X_{ij}^1 + \dots + \beta_{kj}X_{ij}^k + \epsilon_{ij}$$

$$\beta_{0j} = \gamma_{00} + \gamma_{01}REG_MNC + \gamma_{02}POP + \mu_{0j}$$

$$\beta_{1j} = \gamma_{10}$$

⋮

$$\beta_{kj} = \gamma_{kj}$$

$$y_{ij} = \gamma_{00} + \gamma_{01}REG_MNC + \gamma_{02}POP + \gamma_{10}X_{ij}^1 + \dots + \gamma_{k0}X_{ij}^k + \mu_{0j} + \epsilon_{ij}$$



V.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 분석방법

□ 분석변수

변수명	측정 방법	
종속변수	삶의 만족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값
	행복	"귀하는 어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의 문항에 대해 0=한번도 행복하지 않았다에서 10=자주 행복했다고 응답한 값
	걱정	"귀하는 어제 얼마나 걱정을 하셨습니까?"의 문항에 대해 0=한번도 걱정하지 않았다에서 10=자주 걱정을 했다고 응답한 값
	생활만족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값
독립변수	연령	조사시점의 응답자 연령
	혼인상태	0=현재 배우자 없음, 1=현재 배우자 있음으로 코딩한 값
	월평균소득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의 문항에 대하여 1=50만원 미만, 2=50~100만원 미만, 3=100~200만원 미만, ..., 9=700~800만원 미만, 10=8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값
	사회적 지원	"귀하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0=없다, 1=있다고 코딩한 값
	공동체 의식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값
	범죄피해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와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의 문항에 대해 1=전혀 두렵지 않다에서 5=매우 두렵다로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값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교통사고, 화재(산불 포함),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정보보안(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범죄위험, 전반적인 사회안전의 9개 항목에 대하여 1=매우 불안에서 5=매우 안전으로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값
	환경체감도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용출수),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소음·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의 5개 항목에 대하여 1=매우 나쁘다에서 5=매우 좋다고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값
월소득의 지역평균값 지역인구	월평균소득값에 대한 지역별 평균값 지역별 거주인구	



V.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 분석결과

□ 삶의 만족과 생활만족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 사회적 지원이, 공동체 의식, 사회가 안전, 환경 체감도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과 생활 만족은 높음
- 반면, 나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생활만족과 삶의 만족은 낮음
- 지역수준의 가구소득의 지역평균과 지역 인구를 투입한 결과, 월소득의 지역별 평균 값은 양(+)의 영향을 주나, 지역인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수준 및 변수	삶의 만족에 대한 분석 결과			생활만족에 대한 분석 결과		
	무조건모형 (Null Model)	1수준 변수	1수준 및 2수준 변수	무조건모형 (Null Model)	1수준 변수	1수준 및 2수준 변수
1수준						
절편	6.18*** (.05)	6.14*** (.04)	6.13*** (.04)	6.12*** (.05)	6.07*** (.04)	6.06*** (.04)
연령	-	-.01*** (.00)	-.01*** (.00)	-	-.00*** (.00)	-.00*** (.00)
혼인상태	-	.23*** (.01)	.23*** (.01)	-	.09*** (.01)	.09*** (.01)
월평균소득	-	.14*** (.00)	.14*** (.00)	-	.10*** (.00)	.10*** (.00)
사회적 지원	-	.58*** (.01)	.58*** (.01)	-	.42*** (.01)	.42*** (.01)
공동체 의식	-	.23*** (.01)	.23*** (.01)	-	.23*** (.01)	.23*** (.01)
범죄피해 두려움	-	-.11*** (.01)	-.11*** (.01)	-	-.11*** (.00)	-.11*** (.00)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21*** (.01)	.21*** (.01)	-	.28*** (.01)	.28*** (.01)
환경체감도	-	.27*** (.01)	.27*** (.01)	-	.37*** (.01)	.37*** (.01)
2수준						
월소득의 지역평균값	-	-	.15* (.08)	-	-	.21** (.07)
지역인구	-	-	-.00 (.00)	-	-	-.00 (.00)
변량요인(Variance Components)						
1수준 잔차 분산	3.19	2.89	2.89	2.88	2.61	2.61
절편 분산 (Intercept Variance)	.221***	.122***	.117***	.211***	.115***	.102***
추가 정보						
ICC	.065	.041	.039	.065	.042	.038



V. 공통항목을 통한 지역 삶의 질 분석

▶ 분석결과

□ 행복과 걱정

- 행복과 걱정에 대한 개인 수준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역 수준의 변수인 월소득의 지역 평균값과 인구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수준 및 변수	행복에 대한 분석 결과			걱정에 대한 분석 결과		
	무조건모형 (Null Model)	1수준 변수	1수준 및 2수준 변수	무조건모형 (Null Model)	1수준 변수	1수준 및 2수준 변수
1수준						
절편	6.09*** (.04)	6.05*** (.02)	6.04*** (.04)	4.60*** (.04)	4.63*** (.03)	4.63*** (.03)
연령	-	-.01*** (.00)	-.01*** (.00)	-	-.00 (.00)	-.00 (.00)
혼인상태	-	.29*** (.01)	.29*** (.01)	-	-.04** (.01)	-.04** (.01)
월평균소득	-	.13*** (.00)	.13*** (.00)	-	-.06*** (.00)	-.06*** (.00)
사회적 지원	-	.57*** (.02)	.57*** (.01)	-	-.45*** (.02)	-.45*** (.02)
공동체 의식	-	.21*** (.01)	.21*** (.01)	-	-.13*** (.01)	-.13*** (.01)
범죄피해 두려움	-	-.07*** (.01)	-.07*** (.01)	-	.21*** (.01)	.20*** (.01)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21*** (.01)	.21*** (.01)	-	-.14*** (.01)	-.14*** (.01)
환경체감도	-	.23*** (.01)	.23*** (.01)	-	-.15*** (.01)	-.15*** (.01)
2수준						
월소득의 지역평균값	-	-	.03 (.04)	-	-	-.02 (.08)
지역인구	-	-	-.00 (.00)	-	-	.00 (.00)
변량요인(Variance Components)						
1수준 잔차 분산	3.32	3.05	3.05	4.51	4.40	4.40
절편 분산 (Intercept Variance)	.100***	.048***	.046***	.114***	.109***	.109***
추가 정보						
ICC	.029	.015	.015	.025	.024	.024



VI. 결론 및 시사점

한계점

- 지역사회조사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공통항목 첫 조사이고, 특히 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조사환경의 어려워 지역의 자료비교에는 한계
-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선정 및 지침을 제공하여 조사하였으나, 차이나는 항목 존재
- 영역별 2년 주기 조사로 인해 모든 영역에 대한 통합된 삶의 질 분석의 어려움

조사결과

- 공통항목과 유사 조사결과와 비교 시, 조사간 시점, 문항 등의 차이와 더불어 2020년의 특수성으로 조사결과와 타당성을 판단 및 체계적 비교에 한계
- 향후 자료가 축적이 되고, 조사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타조사와 비교 등을 통해 비교검증 가능

시사점

-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활용하여 향후 지역 삶의 질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축에 활용
- 지역간 공통항목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맞춤형 대안 마련 틀 제공

세션1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

행복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 적용 방안

홍성호 교수 (공주대학교)



행복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 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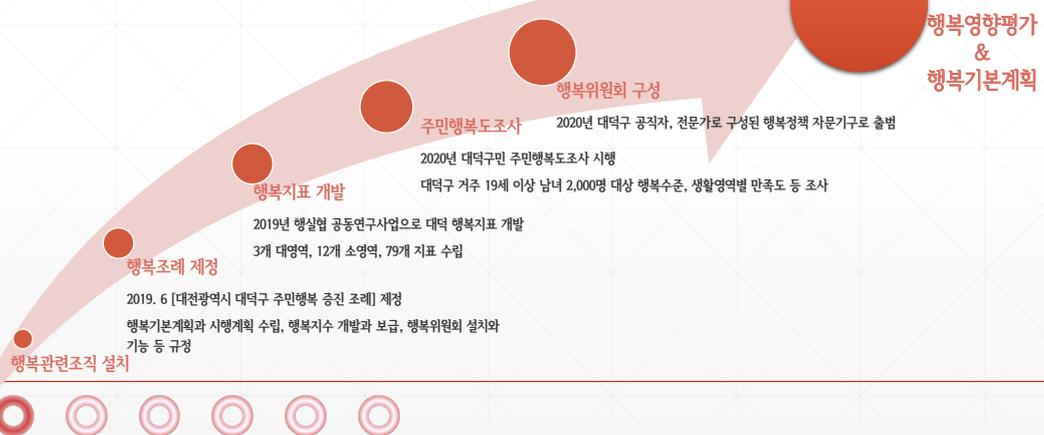
홍성효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본 발표자료는 ‘대덕구 행복영향평가 방안 연구’(전재경 외, 2021)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행복정책: 대덕구 사례



■ 국민총행복포럼 지방정부협의회



행복정책: 부탄의 심사도구(screening tool)



구분	내용
유형	정책평가, 프로젝트 평가
대상	모든 정책 및 프로젝트
평가주체	부탄국민총행복위원회(GNHC)
평가시기	정책, 사업 시행 전
평가성격	정성적, 주관적
평가항목	정책심사: GNH Index와 관계된 23개 항목.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항목 풀에서 탄력적으로 선정
평가방법	각 항목 별 1점(부정적 영향), 2점(불명확), 3점(영향 없음), 4점(긍정적 영향)으로 평가하여 중립점수(항목 수*3점)를 통과해야 함. 중립점수를 넘겨도 특정 항목에서 점수가 낮다면 보완을 위한 권고안 제시
의무여부	의무평가
활용	정책, 프로젝트의 시행 여부 결정



행복정책: 부탄의 심사도구(screening tool)



- 부탄의 행복영향평가제 점수산정방식 예시

소득분배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득분배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지 않다	소득분배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분배 형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점	2점	3점	4점
부정적 영향	불명확	중립	긍정적 영향
-	?	0	+

- 부탄의 행복영향평가제도 사례: WTO 가입안

No.	지표	문항	평가 점수	비고
1	안전(security)	해당 인구 내 경제적 안전에 손 증가를 낳을 것임	1	부정적
2	형평성(equity)	보다 높은 소득 집단에 비해 낮은 소득 집단에 호의적일 것임	1	부정적
3	생산성(productivity)	생산적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갖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킬 것	4	긍정적
4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야생의 건강과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	1	부정적
5	자연(nature)	자연에 대한 접근과 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손 증가를 낳을 것	1	부정적
6	영성(spiritual)	사람들이 영성 추구에 시간을 쓰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	1	부정적
...
지표수: 23	합계		49	
	중립점수 기준	69점(23항목*3점)	심사결과	기각



행복영향평가 방안



	1안(의사기반 결정)	2안(증거기반 결정)
특성	점검표·행복지표 활용	행복도조사결과 활용
주체	업무 담당자, 업무담당자+담당부서, 행복부서, 행복위원회 및 전문기관까지 가능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행복부서
대상	모든 정책, 사업, 계획	(수혜대상이 식별 가능한) 정책, 사업
평가시기	사전, 중간, 사후	사전
평가방법	1) 행복지표 및 행복도조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항목에 대해 점검 및 약식 기술 2) 항목에 대한 정성적 평가(점수 부여)	1) 주민행복도조사 결과에 근거해 행복도계수를 도출 후 평가 2) (예산사업의 경우) 단위 비용 대비 행복증진량을 비교하여 우선순위 결정



행복영향평가 1안: 의사기반 결정



- 평가주체
 - 점검표 기반 행복영향평가 방식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담당공무원임. 자체평가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으나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물론 담당공무원 외에 행복전담부서, 외부전문가 및 행복위원회 평가 역시 가능
 - 전담부서의 적극적 역할과 행복정책 확산을 위해 행정결재라인에 행복관련 부서장 결재란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계획과 사업에 적용 가능
 - 그러나 평가대상을 정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 상황과 판단에 의존해야 함
- 부서평가 제안
 - 행복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평가대상에 조직, 즉 부서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복정책이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공무원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도 주목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복정책이 특정 담당자나 부서의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구경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 부서 평가가 필요. 점검표를 통해 자체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서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안>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행복 기반 구축	리더의 행복행정리더십	부서내 행복친화적 문화조성 노력
	행복정책관련 모니터링 체계	행복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행복친화적 인식체계 확산	행복관련 교육훈련 시행 등
	행복증진을 위한 홍보	행복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행복협치	관련계획 및 타 부서 관련 사업과의 연계조정 노력 등



행복영향평가 1안: 의사기반 결정



<행복정책 점검표 방식1>

단계	항목	점검기준	점검 결과	단계	항목	점검기준	점검 결과
사전	행복지표와의 관련성	▶사업내용이 행복지표와 관련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과정	시민참여	▶정책 전반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행복도 조사 결과 반영	▶행복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는가?(해당지표의 지역, 계층별 설문조사 결과 반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행복취약집단, 행복취약지역을 고려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계획 적절성 및 목표 부합성	▶행복정책의 계획은 적절하고 성과와 목표설정은 적절한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 후반부에 만족도 조사 진행 후 결과 정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만족도 증가에 관한)				
	시민행복 증진가능성	▶본 사업으로 주민 행복이 증진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업 추진으로 목적인 바를 달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본 사업으로 주민행복이 저해될 요소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본 사업으로 시민의 행복이 향상되었는가? →차년도 행복도조사결과 반영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수치 제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본 사업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요소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정책환류	▶행복정책의 성과가 다음 단계의 기획에 반영되는 과정이 나 절차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행복영향평가 1안: 의사기반 결정



<행복정책 점검표 방식2>

항목	점검기준(1-4점으로 평가)				담당자	부서장	행복 전담부서	행복위원회
	1점: 부정적	2점: 알 수 없음	3점: 영향 없음	4점: 긍정적				
행복지표와 관련성	▶사업내용이 제시한 행복지표와 관련성이 있는가?				4	3	3	3
행복도 조사결과 반영	▶주민행복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는가? (해당지표의 지역, 계층별 설문조사 결과 반영 여부)				4	2	2	3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부합성	▶행복정책의 계획은 적절하고 성과의 목표설정은 적절한 수준인가?				4	3	3	4
시민행복증진의 가능성	▶본 사업을 통해 주민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4	4	3	3
	▶본 사업으로 주민행복이 저해될 요소는 없는가?				4	2	4	4
	▶본 사업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요소는 없는가?				4	3	2	3
	▶본 사업으로 지역 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4	2	3	2
시민참여	▶정책의 전반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4	4	4	4
	▶행복취약집단 또는 행복취약지역을 고려하고 있는가?				4	3	3	2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4	2	3	4
목표 달성도	▶사업 추진으로 목적인 바를 달성 하였는가?				4	4	2	3
	▶본 사업을 통해 주민의 행복이 향상되었는가?				4	4	4	3
정책환류	▶행복정책의 성과가 다음 단계의 기획에 반영되는 과정이 나 절차가 있는가?				4	4	3	3
합계(기준점수: 13X=39점)					52	41	39	41



행복영향평가 2안: 증거기반 결정



● 분석들

- 행복은 다차원적이면서 집단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이 아닌 공동체 관점에서의 행복의 가치를 평가
- 공동체 구성원 간 행복격차가 클수록 불행한 사회라고 가정한다면, (지방)정부 혹은 social planner 입장에서는 평등주의적 관점(Rawls)에서의 접근이 공리주의적 관점(Bentham)에서의 접근에 비해 방법론으로서 보다 적합
- 즉, 지자체의 사회후생(social welfare)은, $\max(U_1+U_2+\dots+U_n)$ 가 아닌, $\min(U_1, U_2, \dots, U_n)$ 으로 정의
-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행복영향평가를 설계하고자 함



행복영향평가 2안: 증거기반 결정



● 방법 : 행복취약계층의 도출

- 1) 회귀분석을 통해 행복취약계층의 도출 : $y_i = X_i\beta + \epsilon_i$
 y_i : 개인 i 의 행복점수 내지 행복한 사람 여부(행복지표의 절반 이상에서 충분문턱을 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X_i : 개인 i 의 인구통계적 속성과 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포함하는 매트릭스
 ϵ_i : 통상의 오차항
- 2) β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보다 작은 값을 갖는 X_i 를 행복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을 통한 이들의 행복도 변화를 행복영향평가의 기준으로 삼음



행복영향평가 2안: 증거기반 결정



● 방법 : 평가기준

- 평가대상 정책 혹은 사업이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 간 행복의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
- 절대적 기준 : 행복 불평등도 완화 기준
 - ✓ 특정 정책 혹은 사업 수혜자들 가운데 특정 속성(즉, 행복취약계층)의 비중이 해당 시군 내 모집단에서의 비중보다 커 행복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경우에 선정 혹은 우선적 추진
 - ✓ 즉, 행복취약계층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속성들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행복 불평등도의 심화가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 정책 혹은 사업을 불허하거나 여타 정책들 혹은 사업들 대비 후순위로 조정 혹은 그 규모를 축소
- 상대적 기준 : 예산 대비 행복취약계층의 총행복량 기준
 - ✓ 여러 사업들 간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한 행복취약계층의 총 행복량(즉, $X_i\beta$, 여기서 X_i 는 행복취약계층)을 사업예산으로 나누어 예산 대비 행복취약계층의 총 행복량을 비교하여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



행복영향평가 2안: 증거기반 결정



● A시 사례

- 2020년 A시 행복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56개 개별지표 중 총분문턱(0~10점의 11점 척도에서 6점 이상)을 넘는 지표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경우를 행복한 사람으로 간주

구분	범주	비중	표본수	구분	범주	비중	표본수
학력	고졸 이하	58.0	1,186	성	남성	50.6	1,034
	고졸 초과	42.0	858		여성	49.4	1,010
혼인상태	기혼	67.3	1,375	연령대	19-39세	27.0	552
	그 외	32.7	669		40-59세	36.2	739
월평균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26.7	546		60-69세	19.8	404
	2~5백만원 미만	59.7	1,220		70세 이상	17.1	349
A시 거주기간	5백만원 이상	13.6	278	지역	지역 a	20.2	412
	5년 미만	15.7	321		지역 b	15.4	315
	5~10년 미만	11.2	229		지역 c	16.8	343
주택점유형태	10년 이상	73.1	1,494		지역 d	22.6	461
	자가	72.3	1,478		지역 e	11.2	229
	차가	27.7	566		지역 f	13.9	284



행복영향평가 2안: 증거기반 결정



● A시 사례

- 충분 문턱(6점 이상)을 넘는 지표 수를 OLS 로 추정한 결과

변수	혼인상태(기혼 기준)		가구소득(1백만원 미만 기준)							학력(초등학교 이하 기준)					주택(자가 기준)	
	미혼	이혼·사별	1-2백	2-3백	3-4백	4-5백	5-6백	6-7백	7백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원	전세	월세
추정계수	-0.338	-1.379+	1.962*	4.094**	4.886**	5.990**	4.493**	7.340**	7.114**	2.459**	2.845**	3.474**	4.786**	7.031**	-1.873**	-3.153**
t-값	(-0.37)	(-1.72)	(2.19)	(4.34)	(4.87)	(5.46)	(3.40)	(4.59)	(5.01)	(2.88)	(3.07)	(4.48)	(4.21)	(4.21)	(-3.01)	(-3.88)
변수	지역(지역a 기준)					성별	연령대(20대 기준)					고용	관측수	Adj.R ²		
	지역b	지역c	지역d	지역e	지역f	여성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무직	
추정계수	-1.105	1.364+	2.529**	2.202**	1.054	-2.531**	-2.989**	-3.008*	1.837	4.701**	7.097**	5.826**	-3.318*	2,030	.1463	
t-값	(-1.13)	(1.80)	(3.66)	(2.58)	(1.29)	(-4.57)	(-2.64)	(-2.50)	(1.43)	(3.45)	(4.62)	(3.34)	(-1.88)			

주 : 괄호안의 수치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 A시의 행복취약집단은 이혼·사별, 저소득층, 저학력, 무주택자, 지역 a, b, f 거주자, 여성, 30~49세, 무직자에 해당



행복영향평가 2안: 증거기반 결정



● A시 사례 : 절대적 기준(행복 불평등도 완화 기준)

- 농촌지역 노인기초연금 지급 사업: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약 14,853명이 대상이며, 예산규모는 90억원
- 8개 속성 가운데 학력, 가구소득, 성, 거주지역에서 각각의 행복취약계층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본 사업의 수혜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본 사업의 시행으로 행복 불평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반면 본 사업의 수혜자들 가운데 이혼·사별, 무주택자, 무직자의 비중을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행복 불평등의 완화 여부는 평가 불가능
- 30-49세는 본 사업의 수혜대상이 아니므로 연령 기준에서는 행복 불평등이 심화
- 8개 속성 중 절반에서 행복 불평등이 완화되어 사회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행복 영향 측면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

구분	취약계층	모집단 비중	행복 불평등도 완화 여부 (수혜자 비중)
학력	고등학교 이하	58.0	여 (97.0)
혼인상태	이혼/사별	12.1	- (7)
주택 점유형태	차가	27.0	- (7)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26.7	여 (85.7)
성	여성	49.4	여 (52.4)
연령대	30-49세	28.5	부 (0.0)
거주지역	지역 a(동), b(동), f(면, 4곳)	49.5	여 (53.8)
고용형태	무직	11.4	- (7)



행복영향평가 2안: 증거기반 결정



- A시 사례 : 상대적 기준(행복취약계층의 총행복량 기준)
 - 사업들 간 예산 대비 행복취약계층의 총행복량($X\hat{\beta}$)을 비교하여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파악
 - 앞서 농촌지역 노인기초연금 추가지원 사업을 사업 1이라 하고 특정 지역에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을 사업 2라고 할 때 각 사업의 총행복량을 옆 표와 같이 산출 (행복취약계층만 표시됨)
 - 속성별 취약계층의 추정계수(α), 비중(β), 사업 전체 수혜자수를 곱해 속성별 총행복량을 구하고, 이를 전체 속성에 대해 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행복취약계층의 총행복량 증가규모를 추정
 - 증가한 총행복량을 예산액으로 나누어 예산 대비 총행복량을 산출
 - 사업 2에 비해, 사업 1(농촌지역 노인기초연금 지원)의 예산 1만원당 총행복량 증가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선 앞서는 것으로 평가

구분	행복취약계층	추정계수 (α)	사업 1 (14,853명)		사업 2 (30,000명)	
			비중(β)	총행복량	비중	총행복량
학력	초등학교 이하	4.786	56.0	39,808	14.2	20,388
	중학교	2.327	32.0	11,060	14.1	9,843
	고등학교	1.941	9.0	2,595	29.7	17,294
혼인	이혼/사별	1.379	65.0	13,313	12.1	5,006
	전세	1.873	2.5	695	17.0	9,552
주택점유형태	월세	3.153	18.5	8,664	10.0	9,459
	2백만원 미만	7.340	85.7	93,431	26.7	58,793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7.340	85.7	93,431	26.7	58,793
성별	여성	2.531	52.4	19,699	49.4	37,509
	30-39세	7.689	0.0	0	12.1	27,911
연령	40-49세	7.708	0.0	0	16.4	37,923
	지역 a	2.529	8.0	3,005	20.2	15,326
거주지역	지역 b	2.529	11.9	4,470	15.4	11,684
	지역 f	2.529	33.9	12,734	13.9	10,546
	고용형태	3.318	41.7	20,551	11.4	11,348
합계				230,025		282,583
예산(만원)				900,000		2,000,000
1만원당 총행복량				0.256		0.141



행복영향평가 2안: 증거기반 결정



- 증거기반 행복영향평가의 장점과 한계
 - 장점 : 평가자 주관 개입의 배제 및 평가결과의 일관성
 - ✓ 행복도 조사에 기초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 개입될 염려가 적으며, 동일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동일한 평가결과가 도출
 - 한계 : 사업의 영향의 지속성
 - ✓ 사업 1은 행복의 증진이 비교적 단기에 국한될 개연성이 있는 반면(가령 사업 시행연도에만 증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업 2는 교량건설로 상당기간에 걸쳐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영향의 지속성 차이를 행복영향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같이 사업별 편익산정 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이 가능
 - ✓ 그러나 행복의 set-point theory 혹은 hedonic adaption theory에서와 같이 행복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성향이 있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시간이 길지 않다면 시간의 지속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이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



행복영향평가 2안: 증거기반 결정



● 추진상의 고려사항

- 지역의 행복지표 개발과 주기적 주민행복도 조사
 - ✓ 지역의 특성에 따라 행복취약계층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적 분류로 지역의 행복취약계층을 분류하여 적용하는 경우 오류를 야기할 수 있음
- 지역의 속성별 구성원 분포의 파악
 -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주거실태조사 등도 활용 가능하나 행복조사의 표본이 대표성을 갖는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음
- 속성의 다양한 구분
 - ✓ 본 분석들은 사전적 평가이므로 수혜 주민의 속성 분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속성을 다변화하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함



감사합니다



세션1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

삶의 질과 재정사업간 연계가능성

김선옥 / 장윤정 부연구위원 (한국재정정보원)

삶의 질과 재정사업간 연계가능성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2022. 6. 29

김 선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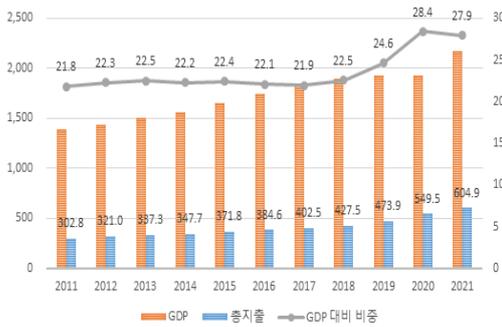
목차

1. 배경
2. 재정사업과의 삶의 질 영역 간 연계
3. 재정사업과 삶의 질 간 연계 결과
4. 해외의 정책 연계 사례
5.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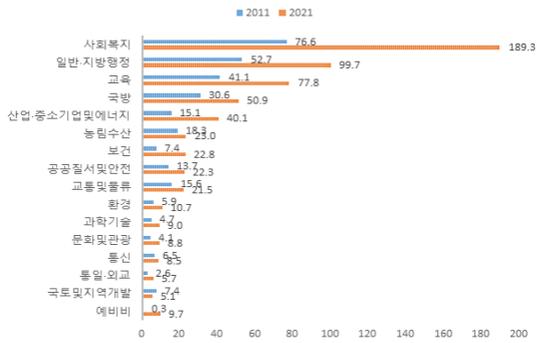
※ 본 발표는 김선옥·장윤정(2021), 「삶의질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보고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배경

- 국민경제(GDP)와 정부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 속도만큼 삶의 질적 여건과 만족도 또한 향상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증대
 -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조 6,309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 기준)
 -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2011년 21.8% → 2021년 27.9%로 증가



주: 2020년까지 결산, 2021년은 2차 추경이 반영된 예산 기준
 자료: 열린재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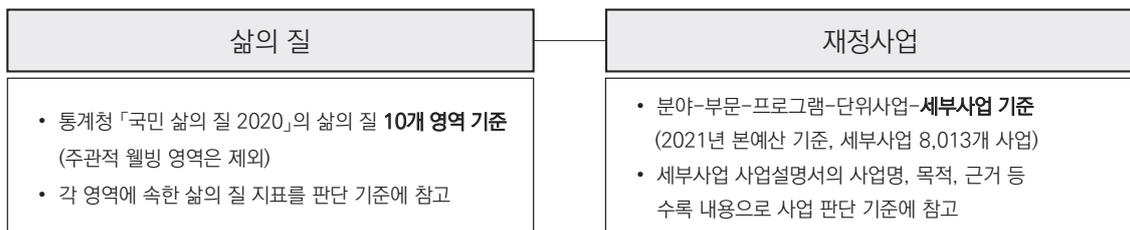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 40개국 중 30위(2020년 기준)

1. 배경

- 양적 지표인 GDP 외에 삶의 질에 대한 측정치를 담은 지표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OECD: 2011년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삶의 질 지표인 '더 나은 삶의 지수' 개발
 - 한국: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 를 발표
- 최근, 정부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도 삶의 질 지표의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
 - EU: 2017-2020 간 삶의 질 지표와 지속가능성장목표를 예산에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Make Sustainability and Wellbeing, Maxwell) 를 진행
 - 뉴질랜드: 2018년 예산안부터 세계 최초의 웰빙 예산 시도
 - 한국: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 수립 추진, 2021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사회통합지표 개발 추진
 - * 사회통합지표 개발: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통합 수준을 확인 및 증거 기반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삶의 주요 영역(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에서 사회통합 증진과 연관성 있는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구축
- 재정운용에 있어서, 운용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삶의 질과 연계하고 삶의 질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 모색 필요성 대두
 - 지금까지는 화폐가치로 측정되는 GDP가 양적인 지표로서 국정 운영과 경제 성과의 중요 목표 자리잡고 있음
 - 재정운용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성과(outcome)로 설정하여 재정활동 과정에 반영

2. 재정사업과의 삶의 질 영역 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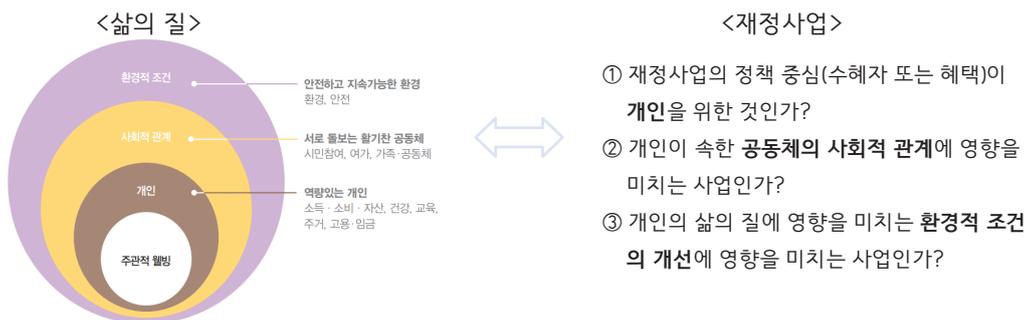
- 현재 재정 체계 하에서 삶의 질을 반영한 예산 운용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 이를 위해 삶의 질과 재정 사업 간 연계를 시도
 - 본 분석에서는 전체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연계 가능성을 검토 해봄
 -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재정 사업 분류 기준과 삶의 질 지표 체계를 검토해 기준 설정하고, 이후 기준에 따라 재정 사업을 삶의 질과 연계 분석하였음
- 연계 기준



5

2. 재정사업과의 삶의 질 영역 간 연계

-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 따라 재정사업의 연관성 검토의 틀



- 각 사업이 속한 분야의 기능을 우선으로 검토한 후, 재정 사업의 목적, 내용, 수혜자 등을 검토해 삶의 질 영역과 매칭
 - ①개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해당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가? ②개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③개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관련성 유무 구분
 - 한 개의 사업이 한 개 이상의 영역과 관련이 있을 때 중복 매칭하고, 위 기준에 따라 재정 사업의 목적과 대상 등 재정 사업 분류 체계와 연계해 재정 사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분야별 삶의 질 분류 체계를 검토

6

2. 재정사업과의 삶의 질 영역 간 연계

- 재정사업 분야와 삶의 질 영역 간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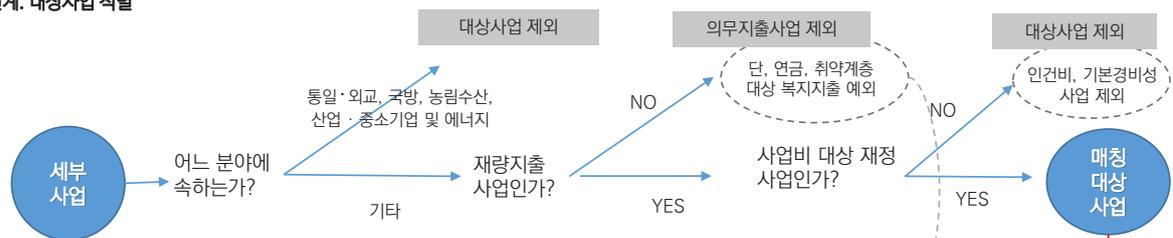
재정사업 분야	삶의 질 영역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일반·지방행정	△			고용	-					△	-
공공질서및안전	△			고용	-				△	△	-
통일·외교	-	-	-	고용	-	-	-	-	-	-	-
국방	-	-	-	고용	-	-	-	-	-	-	-
교육			√	고용	-						-
문화및관광				고용	-	√					-
환경				고용	-			√			-
사회복지	△	△		√	△		△		△		-
보건		√		고용	-						-
농림수산	-	-	-	고용	-	-	-	-	-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	-	고용	-	-	-	-	-	-	-
교통및물류	△			고용	-		△	△	△		-
통신	△			고용	-		△				-
국토및지역개발				고용	-		√				-
과학기술				고용	-						-

주: '√' 표시는 1:1 매칭 가능, '△' 표시는 1:n 매칭 가능, '-' 표시는 관련성이 낮거나 판단 보류 영역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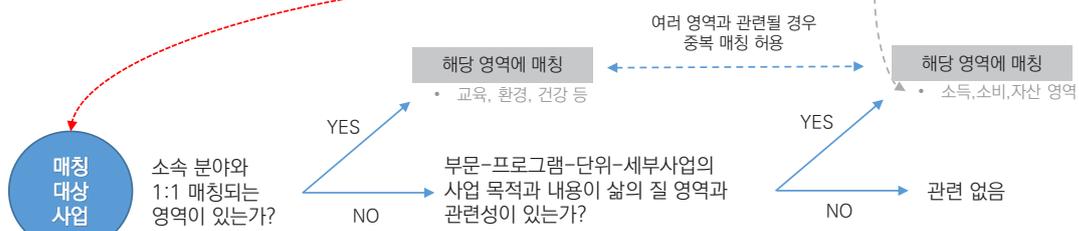
2. 재정사업과의 삶의 질 영역 간 연계

- 연계를 위한 의사결정 경로

1단계. 대상사업 식별



2단계. 삶의 질 영역 매칭



3. 재정사업과 삶의 질 간 연계 결과

- 재정사업과 삶의 질 영역 간 매칭
 - 대부분의 분야에서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삶의 질 영역에 다중으로 매칭

재정사업		삶의 질 영역										
분야	사업수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합계
일반·지방행정	1,036	78				1			1	16	103	199
공공질서 및 안전	605	6								219	3	228
교육	219			119								119
문화 및 관광	504	7	17				74				7	105
환경	379								282			282
사회복지	805	146	17	2	153	24	2	32		36		412
보건	414	1	149							73		223
교통 및 물류	850					1		342	3	18		364
통신	263	10								24	1	35
국토 및 지역개발	213	7						6	21	4		38
과학기술	456		1						20	29		50
합계		255	184	125	153	26	76	380	327	419	114	2,055

주: 매칭된 사업수는 한 개의 재정사업이 두 개 이상의 삶의 질 영역에 매칭된 경우 중복으로 계상된 수치

3. 재정사업과 삶의 질 간 연계 결과

- 재정사업 검토한 결과, 8,013개 세부 사업(2021년 본예산 기준) 중 2,055개 사업이 한 개 이상 삶의 질 영역과 관련성이 있음
 - 16대 분야 기준, 세부 사업과 삶의 질 영역 간 **일대일 매칭**이 가능한 재정 사업은 **교육**(삶의 질 '교육' 영역과 매칭), **환경**(삶의 질 '환경' 영역과 매칭) 등 2개 분야
 - 그 외 분야에서는 재정 사업별 정책 목적에 따라 삶의 질 여러 영역에 다중으로 매칭
 - 사업 수 기준, 삶의 질 측면에서는 **안전 영역에 419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재정사업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412개** 사업 매칭으로 가장 많음
- 재정사업과 삶의 질 연계 시 문제점
 - 분야와 영역, 즉 대분류 단위에서의 연계할 수 없거나 다중 연결이 되는 분야가 존재
 -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의 내용과 재정체계상의 분야-부문과 매칭되지 않는 영역이 다수 존재, 재정사업의 하위단위인 세부사업 기준에서도 매칭에 모호한 사업 다수 존재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하는데 모호함이 존재하여 연구자 주관적 판단에 의존

4. 해외의 정책 연계 사례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 과정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과 예산 과정 간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추진됨
- 국가별 삶의 질 지표와 예산 과정 간 연계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예산사업 우선순위와 중요도 판단에 삶의 질 지표에 입각한 평가를 활용하는 방식 - 뉴질랜드, 부탄
 -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일부 또는 전체를 삶의 질 지표체계상의 영역과 연계하여 파악, 집계하는 방식 - 이탈리아
 -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삶의 질 지표 보고서를 작성, 발표 하거나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식 -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유형	국가
사업 예산 배분에 적극 고려	뉴질랜드, 부탄
신규 예산 사업에 연계	이탈리아
예산 순기에 맞춰 모니터링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4. 해외의 정책 연계 사례

- 부탄
 - 국민총행복 원칙에 입각해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새로 입안하는 정책에 대해 사전 영향 평가에 해당하는 '행복정책심사'를 시행
 - 형평성, 부패, 양성평등, 수질과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 9개 분야 27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모든 영역의 점수 평균이 중립 이상이 되어야 심사 통과
- 뉴질랜드
 -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영향을 핵심 사항으로 고려하도록 예산 과정 개편
 - 2018년 총선의 주요 공약이던 청년 자살률 감소, 아동 빈곤율 해소 등과 관계 있는 사회지표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 내각 예산위원회에 주요 사회지표 추세에 대한 전문가 논의 과정 신설

4. 해외의 정책 연계 사례

- 이탈리아
 - 중기재정계획의 부속 서류로서 삶의 질 보고서를 신설해 의회 제출 의무화
 - 주요 내용은 12개로 선정된 주요 삶의 질 지표의 최근 추세와 예산안 시행 시 개선 정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신규 사업에 대해 삶의 질 지표 영역에 대한 연관성을 식별한 내용 포함

- 그 외,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는 지표를 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서로 발간하는 등 모니터링
 - 스웨덴, 프랑스는 자국민 여론을 수렴해 선정한 10여 개 주요 지표의 최근 동향을 통계청과 재무부 협업으로 예산안 제출 시점에 보고
 - 예산 투입 결과로 이뤄지는 국민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관심 환기

13

5. 시사점

- 연계의 가능성
 - 정부의 기능별 분류가 아닌, 정책 대상 묶음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에서 가능
 - 일부 사업에서 대분류 단위에서의 연계가 불가능하거나 다중연결이 되는 사업이 존재

- 삶의 질을 반영한 재정운용의 가능성
 - 재정사업의 정책목표로 설정할 삶의 질 포괄 범위의 구체적 설정이 필요
 - 사후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재정투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제도적 측면에서의 가능성
 - 예산편성절차의 개편, 예산서 목차와 구성 내용의 변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
 - 성인지, 고용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과 같은 연계를 위해서는 법령 개편을 통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필요
 - 예산안 설명자료 또는 중기재정운용계획 구성 목차에 삶의 질 지표 추이를 포함하여 예산 투입 대비 국민 삶의 질 개선의 보조지표로 활용 가능

14

5. 시사점

- 삶의 질의 영역 중 국가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 및 구체적인 목표 지표 설정 필요
 - 국민참여예산사업,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통합지표(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아젠다 등 활용
 - 국가별 주요 삶의 질 지표와 우리나라 '삶의 질 핵심지표'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지표 설정

국가 영역	이탈리아 (12개)	프랑스 (10개)	스웨덴 (15개)	한국 (‘삶의 질 핵심지표’ (30개) 중)
소득	평균조정소득		1인당 GDP	1인당 국민총소득
불평등	소득불평등도(5분위배율)	소득 5분위 배율		
빈곤	완전빈곤율	빈곤율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고용	노동시장 비참여율	인구 및 연령대별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25-49세 여성 고용률			
교육	조기퇴학률	조기퇴학률	교육수준	
환경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발자국	온실가스배출량	미세먼지농도, 대기질만족도
			대기질	
			수질, 자연환경보호	
건강	(출생시)건강 기대수명	(출생시)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비만율		체내화학물질 잔량	
지속가능성		비금융부문의 GDP대비 부채비율	가계부채	가구부채 비율
			일반정부 통합 총 부채	
주관적 만족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안전	폭력범죄 희생자 수			범죄 피해율
기타	재판 평균소요일수	정부부문/민간부문 GDP대비 R&D 지출	대인신뢰도	
	불법건축물			

15

감사합니다

sokim@kpfis.or.kr

SESSION 2

세션2

한국인의 행복 연구

누가 행복한가? 주요국과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김성아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 북유럽, 중남미, 한국 비교

신혜란 교수 (서울대학교)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

이병재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2

한국인의 행복 연구

누가 행복한가? 주요국과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김성아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누가 행복한가? 주요국과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김 성 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자료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동연구로 수행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이태진, 김성아, 정해석, 이병재, 엄다원, Shun Wang,
전영섭 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복 연구팀]의 일부 내용을 축약한 것임



목차

- I. 문제제기
- II. 행복의 개념과 측정
- III.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 IV.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향
- V.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안

I. 문제제기

PART.01

• 왜 한국인의 행복인가?

주요 정책 목표로서 행복과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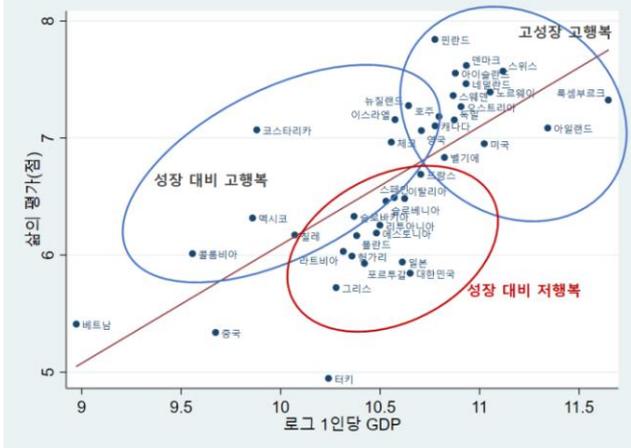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중장기 목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 지수* 향상: 28위('17) → 20위('23) → 10위('40)
 * OECD Better Life Index 中 Life Satisfaction

『청년기본법』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주요국의 경제적 성과 대비 행복 수준 비교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의 자료(<http://www.oecd.org/dataoecd/22/14/49692422.pdf>)에서 2021년 115 인출을 활용하여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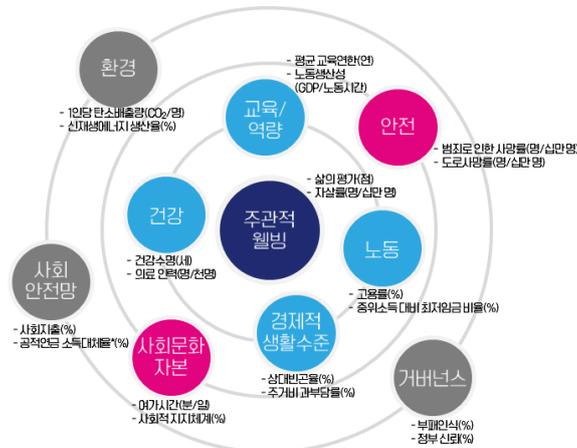
II. 행복의 개념과 측정

PART.02

• 행복 vs. 삶의 질 vs. (주관적) 웰빙?

- 양질의 삶에서 누리는 **행복**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다차원적 삶의 질 지수체계 (김성아 외, 2021)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PART.03

1. 북유럽 행복 선진국 국민의 행복 vs. 한국인의 행복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PART.03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 분석 모형

$$Y_{ijt} = \beta_0 + \beta X_{ijt} + \rho_t + \varepsilon_{ijt}$$

Y_{ijt} 는 결과변수로서 t연도에 국가(j)에 거주하는 개인 i의 행복 측정 지표

X_{ijt} 는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벡터

ρ_t 는 연도 고정 효과, ε_{ijt} 는 개인의 오차항

• 분석의 공간적 범위: OECD 가입국 + 동아시아 국가(중국, 베트남)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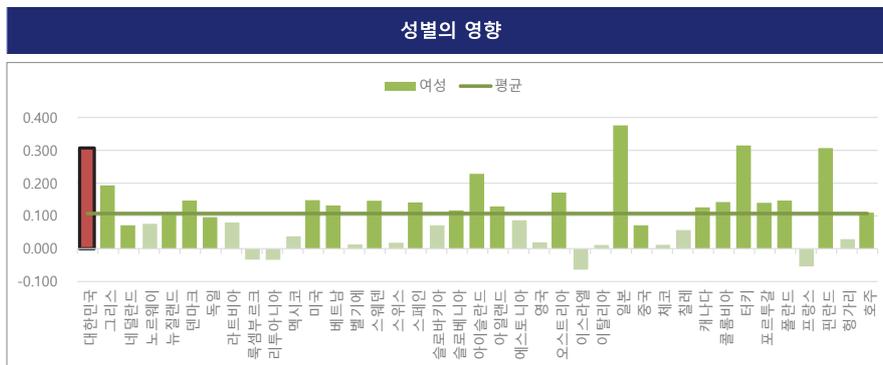
• 분석 자료: 갤럽 월드 폴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		
구분	질문	기대되는 영향
결과변수	삶의 평가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학적 특성	성별	성별
	만나이	만나이
	건강문제	등년배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건강문제가 있습니까?
	혼인상태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미혼 / 결혼한 적 없음, ② 결혼함, ③ 별거함, ④ 이혼함, ⑤ 사별함, ⑥ 파트너 있음
경제적 특성	가구원수 (아동 수)	당신 가구에는 몇 명의 가구원이 있습니까? / 당신이 가구에 15세 이하 아동이 몇 명입니까?
	교육수준	당신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종사상 지위	당신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특성	가구소득	연간 가구소득 및 가구원당 가구소득(미국달러 표준화)
	사회적 지지체계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지나 친구가 있습니까?
	이타적 사회참여 (기부, 자원봉사)	당신은 지난 달에 ①기부나 ②자원봉사를 하셨습니까?
	안전	지난 12개월 동안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혼이나 재산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거버넌스 (부패)	당신의 나라 ①재계나 ②정부 전반이 부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의 자유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
미래 전망	지금, 당신은 당신의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 범위	2006-2020, 1년 주기 조사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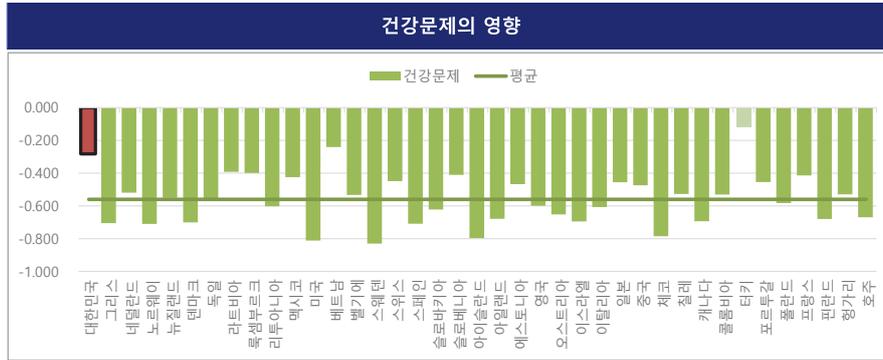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0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강조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된 영향력(Ceteris Paribus)인.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사다리를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친. 진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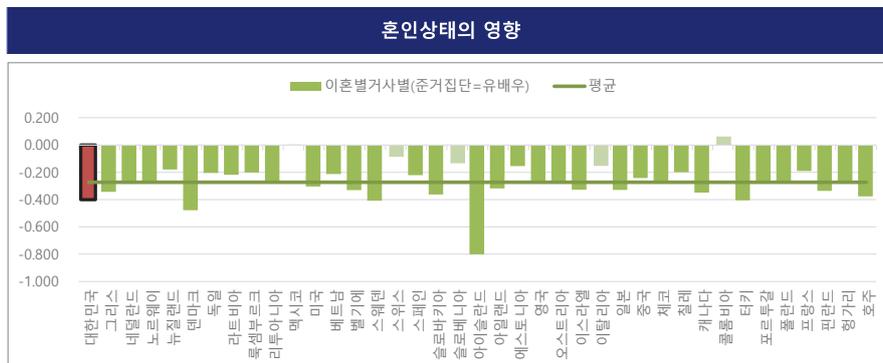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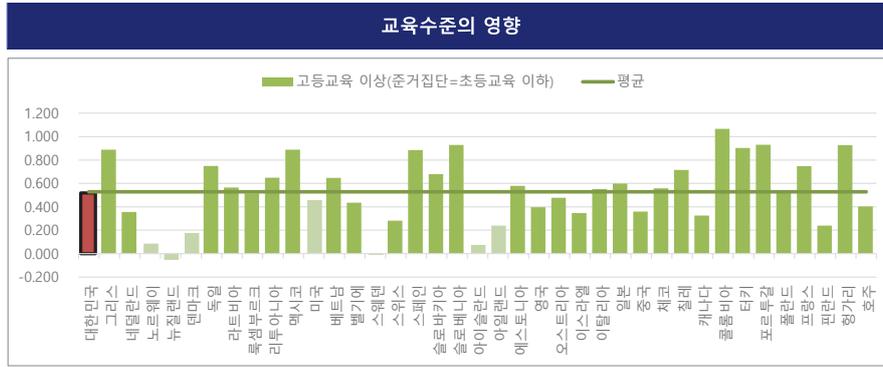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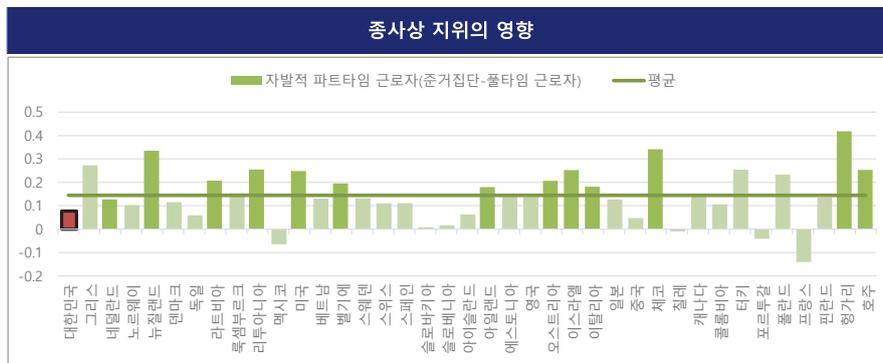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사다리(축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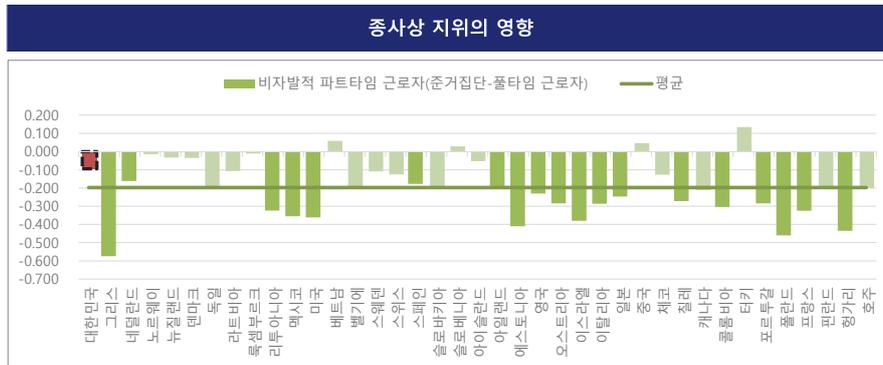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사다리(축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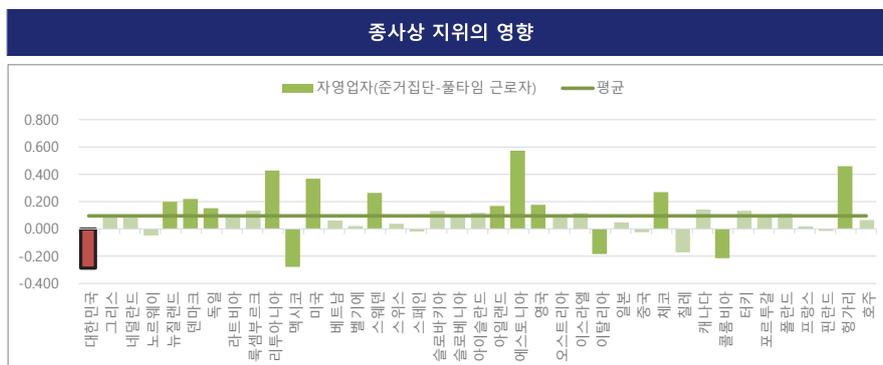
• 분석 결과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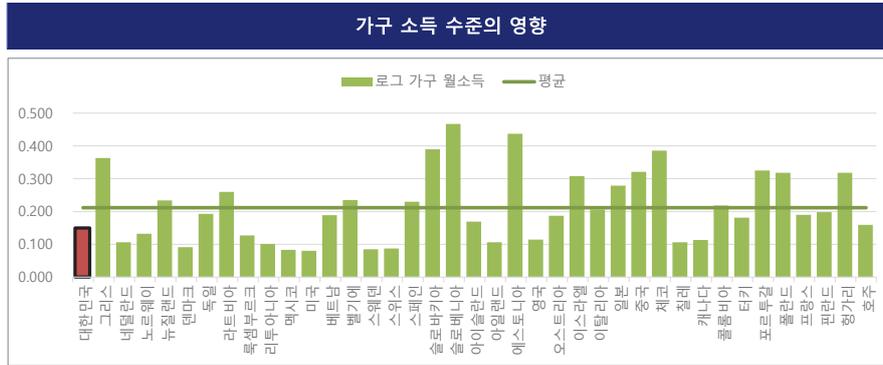
• 분석 결과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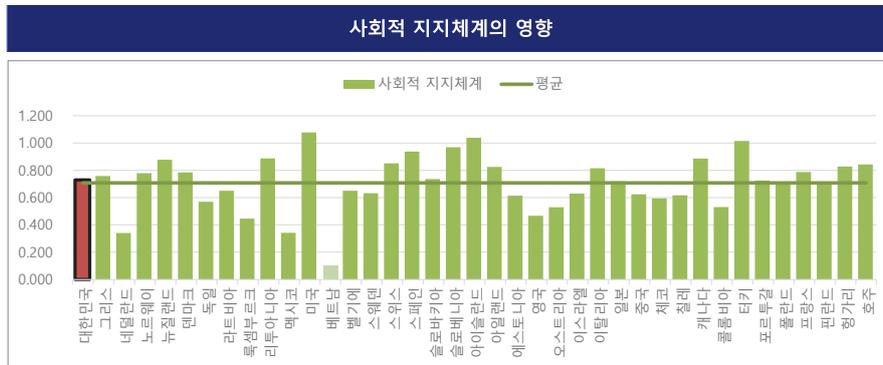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0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시나리오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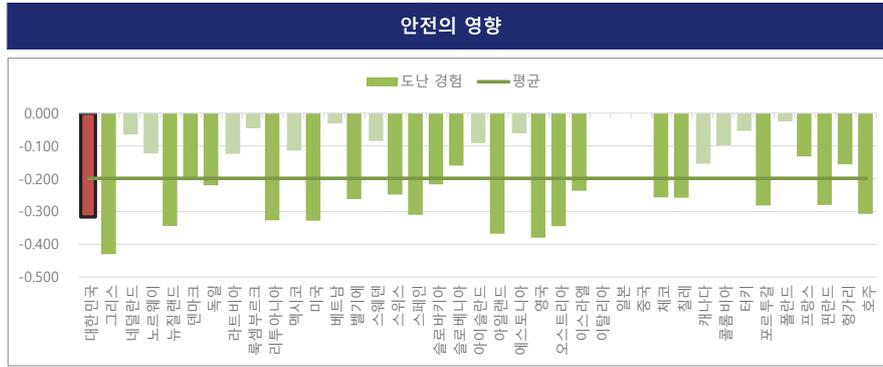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0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시나리오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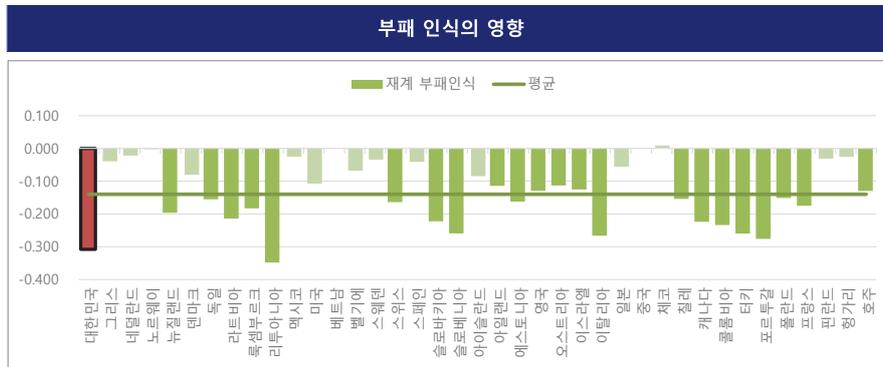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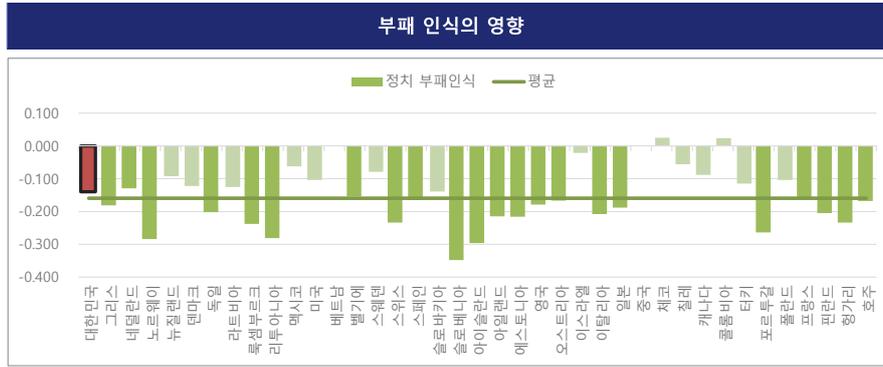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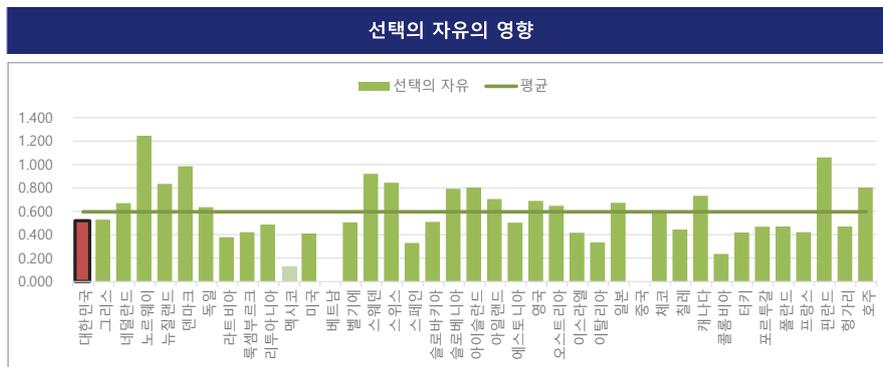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0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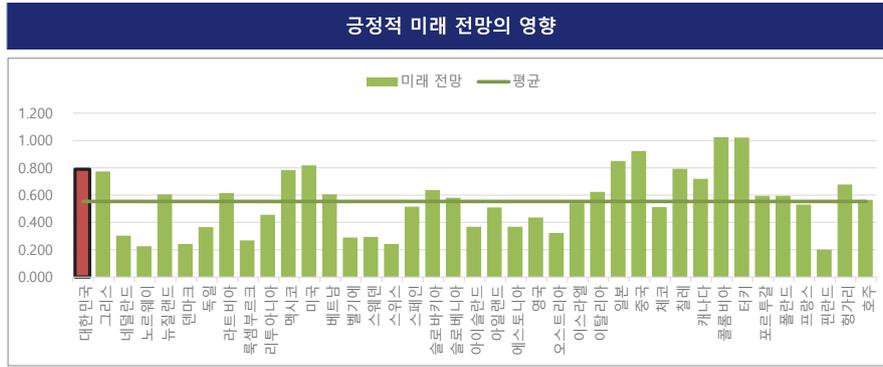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0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 비교

PART.03

• 분석 결과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할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컨트롤 시나리오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색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3. 연령과 행복

PART.03

•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Happiness U-shape over ages)

- 주요국 행복 측정 지표값이 40대 후반에서 최저점을 보이는 현상(Blanchflower & Oswald, 2008; 2009)
- 전 세계 145개 국가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행복 측정 지표값이 U자형, 미국 등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아도 U자형(Blanchflower, 2021)
"The happiness curve is found in 145 countries. No Myth."

• 분석모형

$$Y_{ijt} = \beta_0 + \sum_{a=15}^A \beta_a \text{age}_{ijt} + \beta X_{ijt} + \tau_j + \rho_t + \sigma_{jt} + \varepsilon_{ijt}$$

Y_{ijt} 는 결과변수로서 행복의 측정 지표

age_{ijt} 는 15세를 기준으로 하는 1세별 연령 더미

X_{ijt} 는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벡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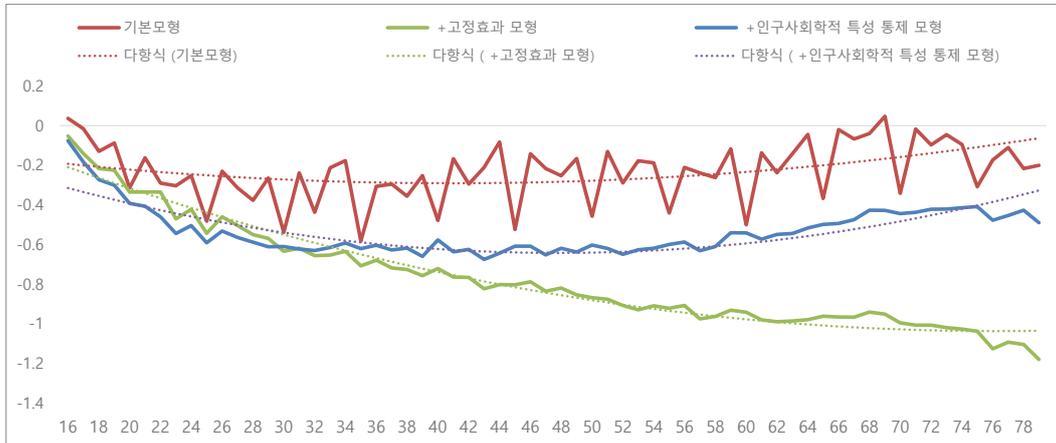
τ_j 는 국가 고정 효과, ρ_t 는 연도 고정 효과, σ_{jt} 는 국가별 시간 추세, ε_{ijt} 는 개인의 오차항

• 분석의 공간적 범위: 전 세계 151개 국가와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한 국가군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3. 연령과 행복

PART.03

세계인의 연령별 삶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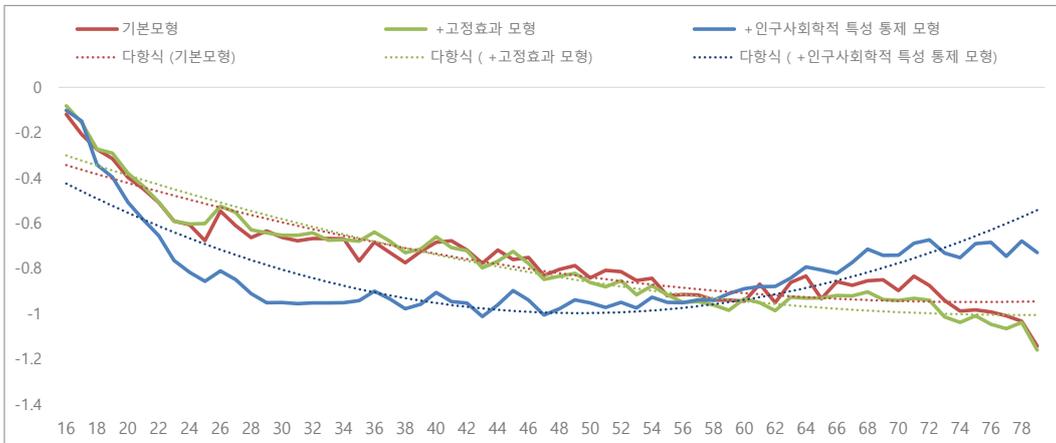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만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기본모형은 만나이의 더미변수만 투입하였고, 고정효과 모형은 기본모형에 국가 및 연도 더미변수와 국가별 추세만 투입하였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은 연도 고정효과 모형에 가구원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민성질량, 혼인상태, 교육수준, 중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9~2021년 전세계 151개국 유효표본 1,097,178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한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3. 연령과 행복

PART.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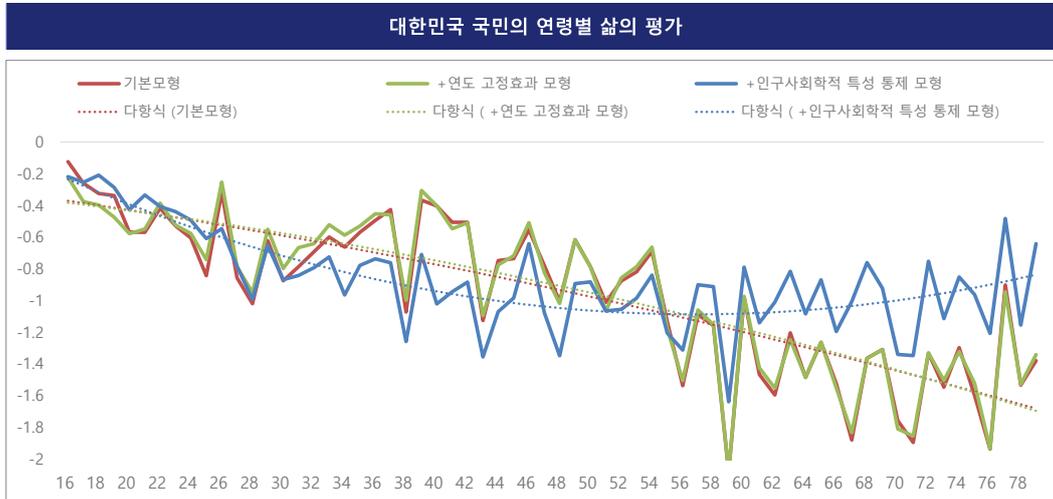
주요국(OECD 가입국 + 중국, 베트남)의 연령별 삶의 평가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만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기본모형은 만나이의 더미변수만 투입하였고, 고정효과 모형은 기본모형에 국가 및 연도 더미변수와 국가별 추세만 투입하였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은 연도 고정효과 모형에 가구원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민성질량, 혼인상태, 교육수준, 중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9~2021년 전세계 151개국 유효표본 1,097,178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한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파냐,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임.

Ⅲ.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행복
3. 연령과 행복

PART.03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만나이(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존가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기본모형은 만나이의 더미변수만 투입하였고, 고정효과 모형은 기본모형에 국가 및 연도 더미변수와 국가별 추세를 투입하였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은 연도 고정효과 모형에 가구원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민성질한, 혼인상태, 교육수준, 중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9-2021년 전세계 151개국 유효표본 1,097,178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한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Ⅳ.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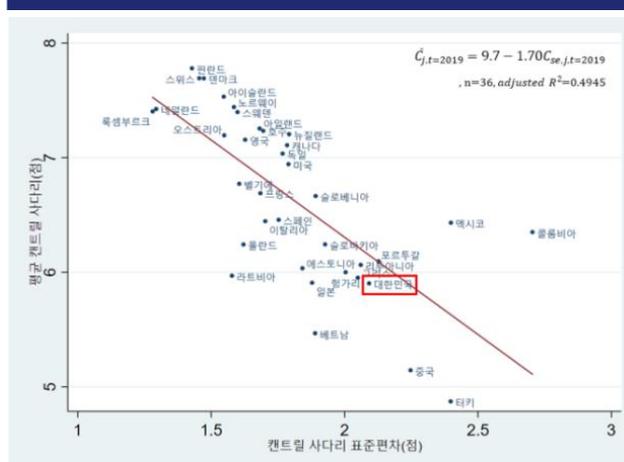
PART.04

• It's the happiness inequality, stupid!

경제적 성과와 행복 수준의 불일치 해소

- (1) 행복 취약계층 대상자 중심 접근
- (2) 행복한 한국을 위한 사회적 노력
- (3)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로의 제도 개선

주요국의 행복 불평등과 행복(2019년)



주: 실선은 회귀선임.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오른쪽 상단과 같은 자료궤를 월드폴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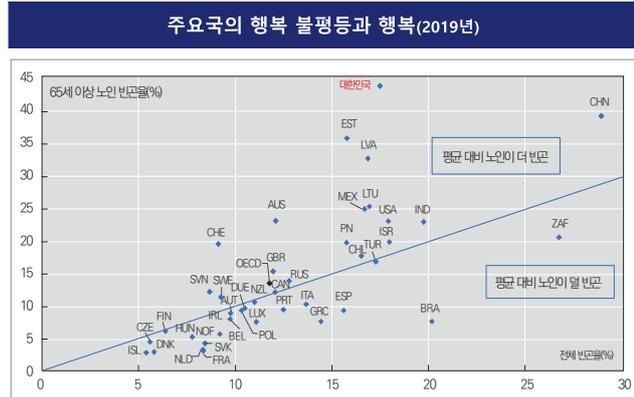
V.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안

PART.05

1. 누가 덜 행복한가?

• 첫째, 중장년과 노인의 삶과 행복

- 주요 선진국에서는 40대 후반에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 삶의 평가
-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실제값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하향
- 노인뿐 아니라 삶의 평가 수준이 회복하지 않는 **중장년의 삶**에 주목할 필요



주요 국가를 제외하고 2019년 자료임 빈곤율은 균등화된 처분가능 소득 중 위 10% 미만의 인구의 비율임
자료: 김성아 이태진 최원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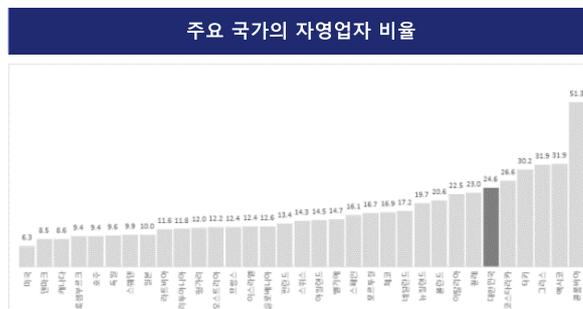
V.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안

PART.05

1. 누가 덜 행복한가?

• 둘째, 자영업자의 삶과 행복

-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경우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
- 한국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근로 기회가 적어지고 자영업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밀어내기 가설**'이 유효
- 자영업자의 삶의 취약성을 다차원적으로 탐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 2020년 기준 이디 최근 자료가 없는 일부 국가는 2019년 자료임 1564세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임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https://stats.oecd.org/tables/tables.aspx?lang=en&cid=648826&cid=648826>에서 20210103 인출 후 저자가 그림 작성

V.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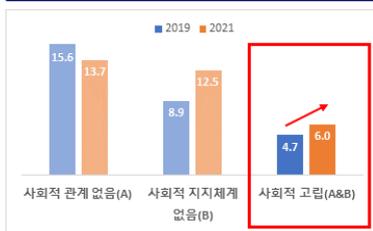
PART.05

1. 누가 덜 행복한가?

• 셋째, 고립된 삶과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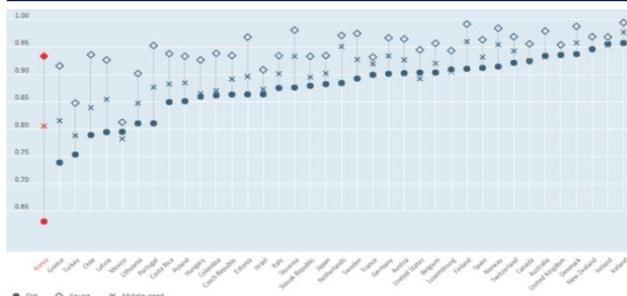
- 사회적 고립을 ①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한 교류가 없고, ② 생활의, 경제적, 정서적 곤란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타인이 없는 경우로 정의
- 팬데믹 동안 심화된 사회적 고립 문제 → **지지체계의 부재**는 정부정책으로 대응할 필요

국내 연령집단별 고립 인구(%)



원자료: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자료: 김성아, (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국가의 연령집단별 사회적 지지체계



주세로축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다는 응답률로 1은 모든 응답자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의미이고 0은 모든 응답자가 없다고 응답했다는 의미임
자료: OECD (2021), Lack of social support (indicator). doi: 10.1787/0cfbe26f-en (2021.11.14. 인출)

V.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안

PART.05

2. 무엇을 더 해야 할까?

• 첫째,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행복예산제

-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정책 효과성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정부예산투입이 필요**

뉴질랜드 재정법에 의한 웰빙예산 프로세스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2018.12.13.). Budget 2019: Budget Policy Statement, New Zealand Government, p.4의 그림을 저자가 국문으로 해석하여 다시 그림.

이탈리아 개정 예산법에 의한 웰빙 지표 재정 활용 프로세스



자료: Sorvillo, (2019). The use of well-being indicator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Presentation at a Study meeting with ISTAT and KIHASA의 그림을 저자가 국문으로 해석하여 다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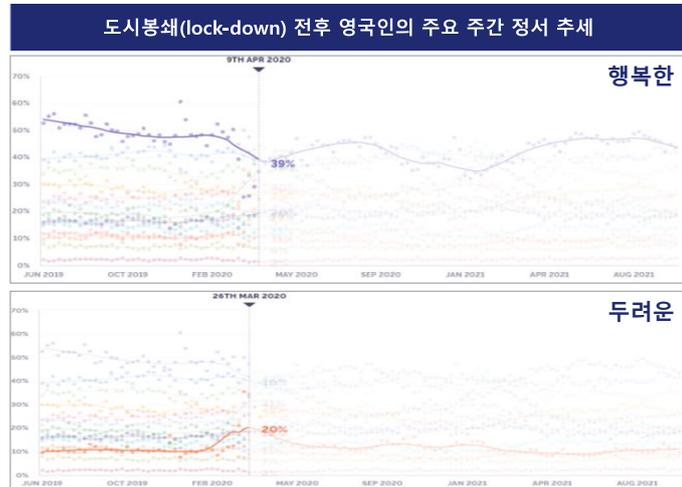
V.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안

PART.05

2. 무엇을 더 해야 할까?

• 둘째, 행복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사회적 변화, 정책 노력이 국민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적응 이슈를 고려하면 행복의 측정 주기는 **짧을수록** 효과적
- 정책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정서적 상태와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
- **행정자료와 연계**하는 방안
→ 정책 효과성 평가



자료: YouGov Britain's mood, measured weekly(<https://yougov.co.uk/topics/science/trackers/britains-mood-measured-weekly>)에서 2021.10.21. 검색

감 사 합 니 다

세션2

한국인의 행복 연구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 북유럽, 중남미, 한국 비교

신혜란 교수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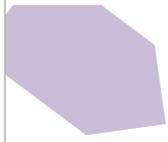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2022. 6. 29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 북유럽, 중남미, 한국 비교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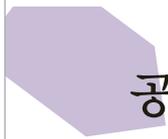
기존 행복연구

- 2000년대 들어 사회과학과 정책분야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happiness turn')
- 이론적 논의, 행복지수를 개발, 행복수준 계량하여 나라별로 비교
- 물질적 기반이 주관적 만족도로 가는 통로가 핵심
 - 개인해석의 심리적 역동성 (순응, 회피, 저항, 불만)



행복연구 맥락화, 과정화

- 행복연구의 맥락화
 - 구체적 맥락 (자연환경과 사회구조)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보는 질적연구가 필요
- 과정화
 - 행복은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함 (Smith & Reid, 2018).



공간적 역량 (Spatial capability)

- 아마티아 쉐(Amartya Sen)의 역량 이론 (capability theory) (2008)
 -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역량으로 규정
 - 가용할 기회가 있는 처지
 - 인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
- 공간적 역량 (Spatial capability) (Shin, 2011; Kim and Shin, 2018)
 - 역량이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공간적 측면을 발전
 - 주거와 이동 선택의 자유

연구방법: 심층인터뷰

- 1년 차 (2019):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2-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 포함, 코펜하겐에서 6명, 오슬로에서 5명
- 2년 차 (2020):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 8명, 코스타리카 산호세 - 8명과 심층 인터뷰 줌(Zoom)으로 심층인터뷰
- 3년 차 (2021):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30대 청년층과 6-70대 노년층을 각각 9명씩 심층 인터뷰

공통점 - 역량의 중요성

-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중요성
- 거주 선택의 자유 - 집값, 치안
- 이동의 자유 - COVID-19, 한국의 경우 군대, 여성
- 대다수 피면담자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을 무척 선호

이동 자유의 제한: 코로나 상황

- 멕시코 피면담자 산티아고는 가장 불행한 시기가 언제였냐는 연구진의 질문에 ‘지금’ (인터뷰 당시, 2020년 8월)이라고 답
 -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제가 불행한 이유는 첫째, 격리되어 타인과의 접촉이 부족한 것이에요. 매일 개를 산책 시키러 가서 공원에서 다른 견주들 만나서 손을 흔드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둘째로 COVID-19로 인해 선택의 폭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래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 장래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인터뷰)
-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된 측면 존재

공통점 - 시대의 변화

- 청년세대 - 경쟁 증가
- 요즘 코스타리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일하는 이유
 - 코스타리카는 교육도 무료이고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요. 비록 약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어도 누군가 열심히 일하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개인의 성과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지요. 전 그렇게 점점 일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걱정이예요. (2020년 8월 20일 인터뷰)

공통점 - 행복할 수 있는 기제 발전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스스로의 행복을 구성하는 기제를 발전

북유럽

- 시스템에 대한 신뢰
 -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주로 만족하거든요.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게 큰 이유예요. (60대, 코펜하겐)
- 자부심, 책임감, 부채의식
 - 덴마크와 같이 좋은 사회에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에요. 불우하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내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내 부모님은 자신들은 가지지 못했던 인생의 자유를 저에게 주었어요.... 만약 실업자가 된다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난 그걸 못 견딜 거예요. (20대 석사과정생, 코펜하겐)

북유럽

- 동호회 활동의 중요성
- 넓고 얇은 사회적 관계
 - 운동, 카드게임 등을 위한 거예요. 멤버십을 위해 돈을 내구요... 그들이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활동 위주예요. 자기가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고 시간이 되면 가서 활동을 하고 맘에 안들면 탈퇴하면 되지요. 나간다고 붙잡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순응하기보다는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문화
 - 덴마크에서는 주로 의견을 소리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다른 덴마크 사람들 혹은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하기도 해요.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문화거든요. 이런 의견개진의 자유가 장점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20대, 국제기구)

중남미

- 좋은 날씨, 싸고 신선한 음식
- 타협적 태도
- 안전에 대한 염려
 - 저는 돈을 좀 더 주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사는 것을 택하겠어요. 멕시코는 불행히도 강도와 같은 사건이 많아요. 심지어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요. 그런데 안전한 동네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해요 (2020년 8월 4일 인터뷰)
- 코스타리카 - 군대 폐지, 무료 교육, 의료
 - 코스타리카에서 경찰을 보거나 정치인을 만나도 권위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친절하고 인간적입니다. 사람들이 겁먹는 것도 없구요. 그런 권위적인 태도가 없는 것은 군대가 없는 사실과 관련 있을 거예요. (2020년 8월 13일 인터뷰)
- 핵심집단 (core group)의 중요성

행복을 만드는 방식 학습

- 60대 멕시코 여성 모니카: 감정을 분리하기
 - 멕시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0년 8월 31일 인터뷰)
- 80대 멕시코 여성인 마리아: 경계 확립
 - 제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나의 경계를 확실하게 확립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타인과 소통하는 법도요. 전 그래서 안정감과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랐어요. (2020년 8월 24일 인터뷰)
- 60대 코스타리카 남성 알베르토: 달리기
 -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혼자만 알고 해결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저는 8남매 중 막내여서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식이었어요. 늘 부모님의 관심이 나보다 형들에게 훨씬 더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2020년 8월 21일)

한국

-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상황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
- 비슷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강제에 의해 군대에 있는 때는 불행한 경험으로 나타나고 자신이 선택한 재수를 할 때는 행복하고 보람있던 경험
-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하고 인정받은 경험이 행복에서 중요
- 과정으로서의 행복과 사건의 양면성
 -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황에 들어서서 불행했지만 그 결과로 노력하여 성취를 하면 큰 행복을 주었다. 한국인 피 면담자들의 행복과 불행에 모두 경쟁, 성취와 연관이 있었다.

한국

- 부모와 자녀의 의무감 – 가족은 행복과 불행에서 둘 다 언급
- 삶의 진도를 내는 것에 대한 중압감
- 외로움, 공허함
- 불행한 상황에 대해 순응과 저항 모두 다소 소극적



결론 및 함의

- 사회 맥락, 시간에 따른 행복의 역동성 보는 것이 중요
- 행복을 학습, 형성하는 삶의 과정

- 평등한 물질적 기반 중요
- 경쟁, 가족의 의미
- 직장과 상관없는 사회적 관계망
-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존중



참고문헌

- Easterlin, RA, Angelescu McVey, L, Switek, M, Sawangfa, O, Smith Zweig, J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22463-22468.
- Elster, J. (1983). *Sour grap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2013) The ends and means of sustainabilit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4(1): 6-20.
- Shin, H. (2011). Spatial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gendered mobility for Korean Christi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48(11), 2355-2373.
- Smith, T. S., & Reid, L. (2018). Which 'being' in wellbeing? Ontology, wellness and the geographies of happi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6), 807-829.

세션2

한국인의 행복 연구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

이병재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

2022. 6.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이병재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CONTENTS.

CHAPTER. 1

서론

CHAPTER. 2

선행연구 검토

CHAPTER. 3

분석 방법

CHAPTER. 3

분석 결과

CHAPTER. 3

결론



1. 서론



문제제기

-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10위권(IMF, 2021), 공식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름(외교부, 2021)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삶의 행복 수준은 경제적 성취에 미치지 못함

연구의 필요성

- 청년과 장년의 불안감, 정신건강 문제에 사회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김지경·이윤주, 2018; 이현주 등, 2020)하고 있지만, 청년과 장년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개입 대상이 되기 어려움
- 주요 선진국에서는 40대 이후 행복 수준이 증가하지만 한국은 50대 이후 행복 수준이 감소(김성아·정해식, 2019)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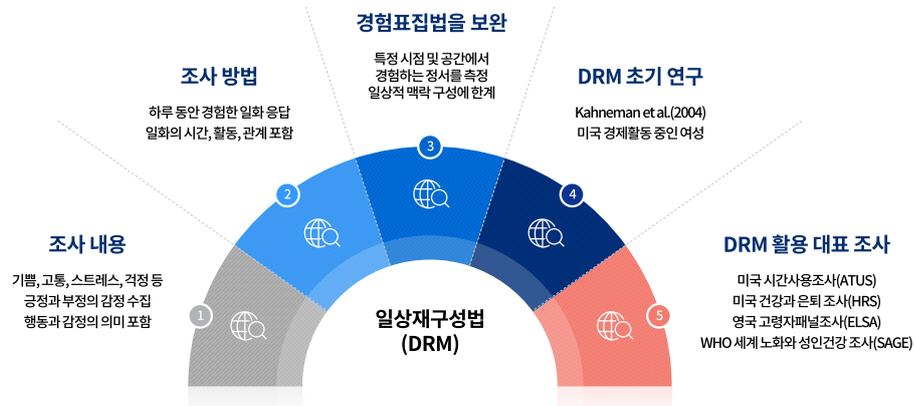
- 청년과 장년, 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집된 일상생활 정보를 재구성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 정책적 시사점 제안
- 전반적 만족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상재구성법 적용

2. 선행연구 검토



01 일상재구성법의 적용과 활용

-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이하 DRM)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의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그 시간과 활동에서 경험한 정서를 평가하는 방법(Kahneman et al., 2004)



2. 선행연구 검토



02 연구 동향

국내 연구

- ① 박정열·손영미(2015) - 경력단절 여성의 활동과 정서
- ② 한경혜·장미나(2011) -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행복감
- ③ 장재윤 외(2007) - 직장인 남녀와 전업주부의 삶
- ④ 한승진·양광희(2013) -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행복
- ⑤ 강승민·장재윤(2018) - 60대 남녀 노인의 행복과 성별 격차
- ⑥ 홍영의(2019) -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행복
- ⑦ 정해식 외(2020) - 노인의 일상생활과 행복

국외 연구

- ① Dolan, Kudrna and Stone(2017) - 주관적 행복의 집단별 비교 연구
- ② Kostadin, Elizabeth and Richard(2015) - 소득과 슬픔의 관계
- ③ Whitehead & Blaxton(2017) - 노인의 신체활동과 정신건강
- ④ Cornwell, B.(2011) - 연령과 사회적 활동의 관계
- ⑤ Genadek, Flood, & Moen(2017) - 50~70대 부부의 시간사용과 행복
- ⑥ Krueger & Schkade(2006) - 노동자의 성격과 직업 선택의 관계
- ⑦ Morris & Hirsch(2015) - 교통 혼잡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감정 변화

인구집단별로 시간, 활동, 관계가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

-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의 정서적 경험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비교 분석함

3. 분석 방법



01 분석자료

2020년,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 2020년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021년 청년, 장년, 중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 비교
- 연도별 시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월, 시간, 조사표 활용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2차년도)

- 1 2020년 기준 1960년 5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 대상
- 2 연령 기준으로 노인에 속하지 않지만 은퇴 이후 노년기 준비하는 인구 포함
- 3 오전, 오후, 저녁 3개 시간대 무작위 할당

노년: 2020년 6월~7월 조사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3차년도)

- 1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약 2,000명의 청년, 중년, 장년 대상
- 2 2021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무작위표본추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2차 층화
- 3 오전, 오후, 저녁 3개 시간대 무작위 할당

청년, 장년, 중년: 2021년 6월~7월 조사

3. 분석 방법



01 분석자료

▶ 유효표본

- 2021년 유효표본은 2,089명, 2020년 유효표본은 1,376명
- 청년~중년까지는 연령대별, 시간대별 균등한 비율로 할당, 노년 또한 시간대별 균등 비율 할당
- 집단별 비율은 노년>중년>청년>장년 순

구분		오전	오후	저녁	계
2021년	청년(19-34)	221(31.5)	221(32.0)	244(35.0)	686(32.8)
	장년(35-45)	210(30.0)	191(27.7)	212(30.4)	613(29.3)
	중년(46-59)	270(38.5)	278(40.3)	242(34.7)	790(37.8)
	청장중년 계	686(32.8)	613(29.3)	790(37.8)	2,089(100.0)
2020년	노년(60~)	495(36.0)	439(31.9)	442(32.1)	1,376(100.0)

3.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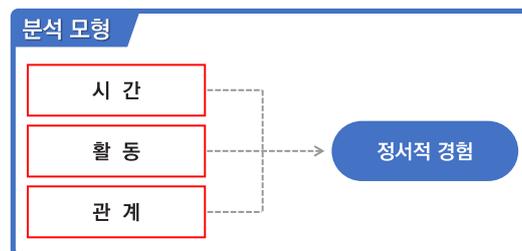


02 분석모형

▶ 연구문제

- 우리나라 청·중·장·노년은 언제, 무엇을 할 때,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 분석 모형



3. 분석 방법



응답자 기초통계

- 2020년 노인 총 응답자 1,376명, 4,404개 일화, 2021년 청~중년 총 응답자 2,098명, 8,650개 일화 수집
- 정서적 경험은 총 8가지로 0~10점 리커트척도 활용하여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강하게 경험
- 정서적 경험은 응답자별 결과가 아닌 일화별로 수집한 결과(노년은 외로운, 불안한 문항 없음)
- 전반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노인이 높고, 부정적 정서는 청~중년이 높음

구분	응답자(n=1,376)		응답자의 일화(n=4,40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면시간(분)	435.6	91.43	434.7	93.38	60	900
행복한(점)			6.7	1.49	0	10
의미 있는(점)			5.7	1.94	0	10
피곤한(점)			3.8	2.36	0	9
스트레스받은(점)			3.1	2.38	0	10
슬픈(점)			2.6	2.30	0	9
고통스러운(점)			2.6	2.30	0	9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

구분	응답자(n=2,089)		응답자의 일화(n=8,65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면시간(분)	410.5	88.1	409.9	87.54	120	870
행복한(점)			5.8	2.19	0	10
의미 있는(점)			5.3	2.43	0	10
피곤한(점)			5.3	2.39	0	10
스트레스받은(점)			4.1	2.63	0	10
슬픈(점)			2.8	2.53	0	10
고통스러운(점)			2.8	2.59	0	10
외로운(점)			2.9	2.61	0	10
불안한(점)			2.8	2.58	0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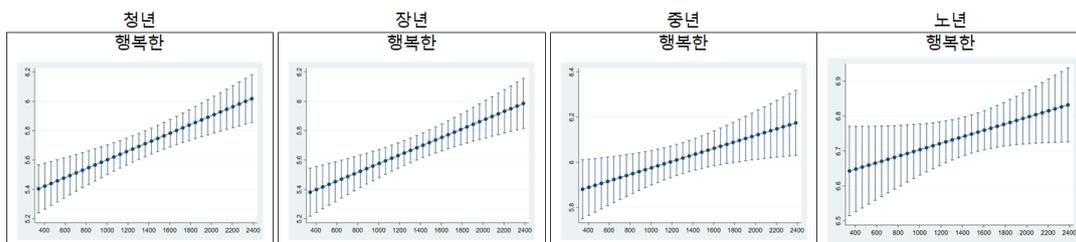
4. 분석 결과



01 언제 행복한가?

행복한

- 모든 인구집단에서 행복한 정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
- 노년층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청년>청장년 순으로 행복감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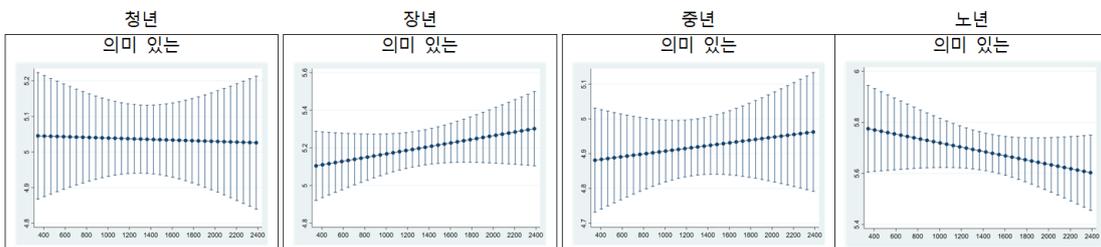
4. 분석 결과



01 언제 행복한가?

● 의미있는

- ‘의미있는’ 정서적 경험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임
- 청년은 소폭 감소하지만 큰 변화가 없고, 장년과 중년은 시간에 따라 증가함
- 노년층은 감소 경향이 뚜렷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모든 인구집단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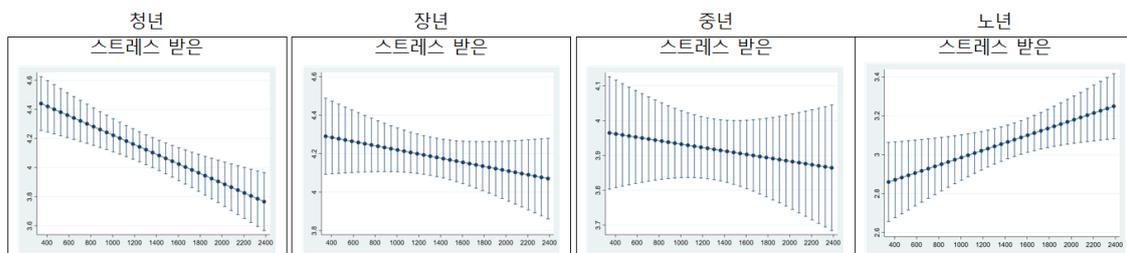
4. 분석 결과



01 언제 행복한가?

● 스트레스 받은

- ‘스트레스 받은’ 정서는 청년~중년이 감소, 노년은 증가
- 스트레스 정도는 노년층이 가장 낮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받은 점수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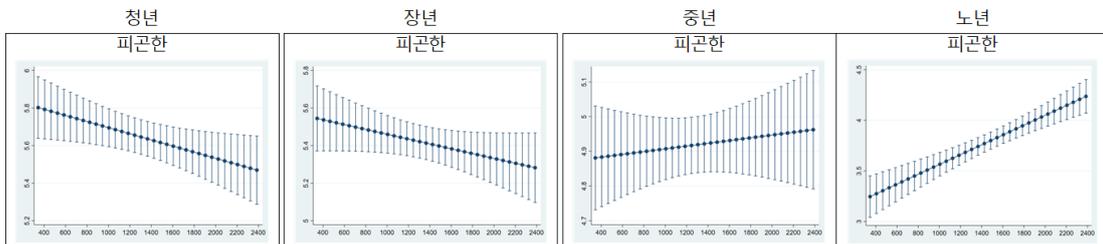
4. 분석 결과



01 언제 행복한가?

● 피곤한

- 청년, 장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곤한 정서가 감소, 중년과 노년은 증가
-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피곤한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이 높음



4. 분석 결과



0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	↓	↑	↓	↑	↓	↑	↓
행복한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78)	일 (4.5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82)	일 (4.71)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91)	일 (5.3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7.15)	일 (6.30)
의미 있는	운동 (6.13)	출퇴근/이동 (4.7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14)	출퇴근/이동 (4.8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32)	컴퓨터/인터넷 (5.69)	운동 (6.23)	수면(5.45)
피곤한	출퇴근/이동 (6.55)	쇼핑/장보기 (5.72)	출퇴근/이동 (6.05)	개인적인 휴식 (4.84)	출퇴근/이동 (5.53)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4.37)	자녀/부모 돌봄 (5.0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31)
스트레스 받은	일 (5.6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97)	일 (5.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34)	일 (4.99)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21)	자녀/부모 돌봄 (4.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46)
슬픈	수면 (3.49)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8)	통화 (3.65)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3)	수면 (3.5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32)	자녀/부모 돌봄 (3.9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1)
고통스러운	일 (4.0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2)	일 (3.64)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4)	수면 (3.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3)	자녀/부모 돌봄 (4.1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99)
외로운	수면 (3.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3)	통화 (3.5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98)	수면 (3.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28)	-	-
불안한	수면 (3.7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6)	일 (3.5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2)	수면 (3.64)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23)	-	-

4. 분석 결과



0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	↓	↑	↓	↑	↓	↑	↓
행복한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78)	일 (4.5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82)	일 (4.71)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91)	일 (5.3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7.15)	일 (6.30)
의미 있는	운동 (6.13)	출퇴근/이동 (4.7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14)	출퇴근/이동 (4.8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32)	컴퓨터/인터넷 (5.69)	운동 (6.23)	수면(5.45)
피곤한	출퇴근/이동 (6.55)	쇼핑/장보기 (5.72)	출퇴근/이동 (6.05)	개인적인 휴식 (4.84)	출퇴근/이동 (5.53)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4.37)	자녀/부모 돌봄 (5.0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31)
스트레스 받은	일 (5.6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97)	일 (5.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34)	일 (4.99)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21)	자녀/부모 돌봄 (4.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46)
슬픈	수면 (3.49)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8)	통화 (3.65)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3)	수면 (3.5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32)	자녀/부모 돌봄 (3.9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1)
고통스러운	일 (4.0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2)	일 (3.64)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4)	수면 (3.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3)	자녀/부모 돌봄 (4.1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99)
외로운	수면 (3.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3)	통화 (3.5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98)	수면 (3.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28)	-	-
불안한	수면 (3.7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6)	일 (3.5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2)	수면 (3.64)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23)	-	-

4. 분석 결과



0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	↓	↑	↓	↑	↓	↑	↓
행복한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78)	일 (4.5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82)	일 (4.71)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91)	일 (5.3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7.15)	일 (6.30)
의미 있는	운동 (6.13)	출퇴근/이동 (4.7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14)	출퇴근/이동 (4.8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32)	컴퓨터/인터넷 (5.69)	운동 (6.23)	수면(5.45)
피곤한	출퇴근/이동 (6.55)	쇼핑/장보기 (5.72)	출퇴근/이동 (6.05)	개인적인 휴식 (4.84)	출퇴근/이동 (5.53)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4.37)	자녀/부모 돌봄 (5.0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31)
스트레스 받은	일 (5.6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97)	일 (5.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34)	일 (4.99)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21)	자녀/부모 돌봄 (4.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46)
슬픈	수면 (3.49)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8)	통화 (3.65)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3)	수면 (3.5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32)	자녀/부모 돌봄 (3.9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1)
고통스러운	일 (4.0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2)	일 (3.64)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4)	수면 (3.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3)	자녀/부모 돌봄 (4.1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99)
외로운	수면 (3.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3)	통화 (3.5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98)	수면 (3.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28)	-	-
불안한	수면 (3.7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6)	일 (3.5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2)	수면 (3.64)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23)	-	-

4. 분석 결과



0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	↓	↑	↓	↑	↓	↑	↓
행복한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78)	일 (4.5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82)	일 (4.71)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91)	일 (5.3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7.15)	일 (6.30)
의미 있는	운동 (6.13)	출퇴근/이동 (4.7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14)	출퇴근/이동 (4.8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32)	컴퓨터/인터넷 (5.69)	운동 (6.23)	수면(5.45)
피곤한	출퇴근/이동 (6.55)	쇼핑/장보기 (5.72)	출퇴근/이동 (6.05)	개인적인 휴식 (4.84)	출퇴근/이동 (5.53)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4.37)	자녀/부모 돌봄 (5.0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31)
스트레스 받은	일 (5.6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97)	일 (5.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34)	일 (4.99)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3.21)	자녀/부모 돌봄 (4.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46)
슬픈	수면 (3.49)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8)	통화 (3.65)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3)	수면 (3.5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32)	자녀/부모 돌봄 (3.9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1)
고통스러운	일 (4.02)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2)	일 (3.64)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4)	수면 (3.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3)	자녀/부모 돌봄 (4.1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99)
외로운	수면 (3.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3)	통화 (3.5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98)	수면 (3.77)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28)	-	-
불안한	수면 (3.7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06)	일 (3.5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2)	수면 (3.64)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23)	-	-

4. 분석 결과



0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 ▶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 모든 인구집단에서 행복한 정서를 가장 강하게 경험
 -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등 부정적 정서는 가장 약하게 경험
- ▶ 일
 - 모든 인구집단에서 일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
 - 생산가능인구에 속하는 청년~중년은 일을 통해 스트레스와 고통도 강하게 경험
- ▶ 수면, 출퇴근/이동
 - 청년과 중년은 수면하는 동안 슬프고, 외롭고, 불안한 정서를 강하게 경험
 - 출퇴근/이동은 청년~중년에게 의미 없고 피곤한 활동으로 응답
- ▶ 자녀/부모 돌봄
 - 노년층은 자녀/부모 돌봄을 통해 피곤함과 스트레스, 슬픔, 고통을 경험하는 특징

4. 분석 결과



0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청년

- ‘먹고 있음’,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개인적인 휴식’을 통해 행복감 증가
- ‘출퇴근/이동’, ‘일’, ‘몸단장’, ‘집안일/식사준비’ 등의 활동을 할 때 행복감 감소
- 일과 관련된 활동은 행복감을 낮추면서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킴
- 휴식을 취하면서 친밀한 관계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행복감을 높임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출퇴근/이동	-0.429*** (0.128)	-0.357** (0.137)	0.916*** (0.119)	0.619*** (0.142)	0.412** (0.148)	0.434** (0.151)	0.335* (0.148)	0.329* (0.143)
일	-1.234*** (0.116)	-0.047 (0.129)	0.763*** (0.117)	1.461*** (0.137)	0.730*** (0.140)	1.150*** (0.143)	0.414** (0.139)	0.740*** (0.141)
집안일/식사준비	-0.458*** (0.115)	0.001 (0.135)	0.320* (0.131)	0.226 (0.138)	0.072 (0.135)	-0.028 (0.135)	0.110 (0.142)	0.122 (0.137)
먹고 있음	0.424*** (0.105)	0.133 (0.124)	-0.299* (0.122)	-0.042 (0.125)	0.025 (0.121)	-0.161 (0.120)	0.063 (0.127)	-0.062 (0.122)
몸단장	-0.668*** (0.150)	-0.292+ (0.152)	0.548*** (0.144)	0.584*** (0.160)	0.734*** (0.164)	0.630*** (0.158)	0.433** (0.162)	0.515** (0.159)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0.937*** (0.119)	0.900*** (0.132)	-0.733*** (0.145)	-1.254*** (0.140)	-0.888*** (0.128)	-0.958*** (0.131)	-1.211*** (0.131)	-1.002*** (0.131)
개인적인 휴식	0.916*** (0.095)	0.077 (0.113)	-0.494*** (0.108)	-1.059*** (0.112)	-0.608*** (0.108)	-0.783*** (0.110)	-0.381*** (0.112)	-0.539*** (0.112)
상수	5.498*** (0.076)	4.835*** (0.084)	5.599*** (0.079)	4.064*** (0.086)	2.726*** (0.086)	2.905*** (0.087)	2.712*** (0.090)	2.727*** (0.087)
N	2835	2835	2835	2835	2835	2835	2835	2835
adj. R-sq	0.156	0.042	0.092	0.148	0.064	0.103	0.057	0.067

+p<0.1, *p<0.05, **p<0.01, ***<0.001

4. 분석 결과



0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장년

- 일과 집안일, 식사준비 등이 행복감을 낮추고 피곤한 정서를 강하게 경험
- 자녀/부모 돌봄, 친구/동료들과 어울림,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개인적인 휴식이 행복감을 높이는데 영향
- 청년에 비해 장년은 가족이나 연인 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행복한 정서를 경험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일	-0.969*** (0.109)	0.059 (0.125)	0.589*** (0.114)	1.329*** (0.127)	0.685*** (0.136)	0.757*** (0.141)	0.628*** (0.136)	0.801*** (0.138)
집안일/식사준비	-0.457*** (0.099)	-0.121 (0.121)	0.449*** (0.112)	0.537*** (0.124)	0.332** (0.122)	0.232+ (0.128)	0.402** (0.126)	0.105 (0.123)
자녀/부모 돌봄	0.390*** (0.105)	0.826*** (0.123)	0.310** (0.118)	0.292* (0.132)	-0.201 (0.130)	-0.276* (0.133)	-0.234+ (0.133)	-0.073 (0.131)
친구/동료들과 어울림	0.527*** (0.141)	0.184 (0.162)	-0.345* (0.139)	-0.530*** (0.156)	-0.333* (0.167)	-0.429* (0.172)	-0.528** (0.168)	-0.364* (0.168)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088*** (0.105)	0.951*** (0.128)	-0.649*** (0.124)	-0.965*** (0.133)	-0.788*** (0.131)	-0.792*** (0.134)	-1.172*** (0.128)	-0.768*** (0.131)
개인적인 휴식	0.560*** (0.094)	-0.180 (0.121)	-0.559*** (0.112)	-0.766*** (0.116)	-0.333** (0.115)	-0.507*** (0.117)	-0.261* (0.118)	-0.240* (0.118)
상수	5.435*** (0.073)	4.864*** (0.084)	5.252*** (0.082)	3.900*** (0.088)	2.707*** (0.087)	2.800*** (0.091)	2.818*** (0.088)	2.585*** (0.089)
N	2546	2546	2546	2546	2546	2546	2546	2546
adj. R-sq	0.161	0.080	0.083	0.144	0.067	0.071	0.076	0.059

+p<0.1, *p<0.05, **p<0.01, ***<0.001

4. 분석 결과



0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중년

- 중년은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정서를 경험
- 일, 집안일/식사준비 등은 행복감을 낮추고 피곤함과 스트레스, 고통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강화
- 청년, 장년에 비해 활동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함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일	-0.698*** (0.088)	0.211* (0.097)	0.590*** (0.097)	1.204*** (0.105)	0.724*** (0.110)	0.840*** (0.109)	0.725*** (0.111)	0.672*** (0.110)
집안일/식사준비	-0.624*** (0.089)	-0.178+ (0.102)	0.693*** (0.107)	0.778*** (0.110)	0.509*** (0.110)	0.512*** (0.110)	0.372** (0.116)	0.289* (0.116)
먹고 있음	0.282*** (0.084)	0.156 (0.099)	-0.160 (0.100)	-0.053 (0.104)	-0.038 (0.104)	-0.083 (0.102)	0.199+ (0.111)	0.040 (0.110)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027*** (0.087)	0.789*** (0.109)	-0.776*** (0.112)	-0.964*** (0.109)	-0.912*** (0.110)	-0.921*** (0.105)	-1.264*** (0.113)	-0.988*** (0.112)
상수	6.023*** (0.062)	5.481*** (0.072)	4.696*** (0.070)	3.412*** (0.074)	2.479*** (0.075)	2.374*** (0.075)	2.578*** (0.077)	2.421*** (0.077)
N	3269	3269	3269	3269	3269	3269	3269	3269
adj. R-sq	0.112	0.029	0.076	0.131	0.063	0.075	0.069	0.069

+p<0.1, *p<0.05, **p<0.01, ***<0.001

4. 분석 결과



0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노년

- 노년은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동료와 어울릴 때 행복한 정서를 경험
- 운동이 행복감과 의미있는 정서를 경험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른 인구집단과 구별되는 특징
- 일, 집안일/식사준비가 행복감을 낮추고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은 공통적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함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일	-0.622*** (0.087)	0.236* (0.105)	1.088*** (0.139)	0.959*** (0.142)	0.374** (0.137)	0.350** (0.135)
집안일/식사준비	-0.314*** (0.075)	0.019 (0.101)	0.182 (0.113)	0.338** (0.118)	0.209+ (0.114)	0.121 (0.113)
친구/동료와 어울림	0.241** (0.091)	0.327** (0.109)	0.026 (0.148)	-0.198 (0.154)	-0.251+ (0.142)	-0.273+ (0.1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0.496*** (0.093)	0.375** (0.141)	-0.289* (0.141)	-0.642*** (0.127)	-0.680*** (0.125)	-0.622*** (0.127)
운동	0.243* (0.114)	0.511** (0.162)	0.068 (0.188)	-0.331+ (0.182)	-0.15 (0.17)	-0.151 (0.18)
상수	2.942 (5.134)	7.827 (6.616)	20.942* (8.137)	23.772** (8.021)	16.796* (7.449)	21.304** (7.506)
N	4404	4404	4404	4404	4404	4404
adj. R-sq	0.111	0.073	0.089	0.098	0.088	0.089

+p<0.1, *p<0.05, **p<0.01, ***<0.001

4. 분석 결과



03 관계 -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	↓	↑	↓	↑	↓	↑	↓
행복한	배우자/연인 (7.08)	고객, 학생 (3.68)	배우자/연인 (6.71)	직장상사 (4.54)	자녀 (6.86)	직장상사 (5.40)	자녀 (7.00)	직장상사 (5.68)
의미 있는	자녀 (6.30)	고객, 학생 (4.55)	자녀 (6.02)	없음-혼자 (4.69)	고객, 학생 (6.41)	없음-혼자 (5.39)	자녀 (6.22)	다른 친척 (4.79)
피곤한	고객, 학생 (7.48)	친구 (4.57)	직장상사 (6.36)	친구 (4.49)	고객, 학생 (5.85)	배우자/연인 (4.41)	직장상사 (4.86)	친구 (3.54)
스트레스 받은	고객, 학생 (6.94)	배우자/연인 (2.87)	직장상사 (5.57)	다른 친척 (3.07)	고객, 학생 (5.35)	배우자/연인 (3.19)	부모 (4.38)	친구, 자녀 (2.76)
슬픈	직장 동료 (3.17)	자녀 (1.57)	직장 동료 (3.35)	다른 친척 (1.80)	부모 (3.50)	자녀 (2.19)	부모 (3.90)	자녀 (2.28)
고통스러운	고객, 학생 (4.68)	자녀 (1.48)	고객, 학생 (3.64)	다른 친척 (2.07)	다른 친척 (3.42)	자녀 (2.09)	부모 (3.57)	자녀 (2.30)
외로운	없음-혼자 (3.19)	배우자/연인 (1.57)	고객, 학생 (3.49)	다른 친척 (1.47)	부모 (3.80)	자녀 (2.21)	-	-
불안한	고객, 학생 (3.45)	배우자/연인 (1.81)	고객, 학생 (3.72)	다른 친척 (1.53)	부모 (3.37)	배우자/연인 (2.22)	-	-

4. 분석 결과



03 관계 -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	↓	↑	↓	↑	↓	↑	↓
행복한	배우자/연인 (7.08)	고객, 학생 (3.68)	배우자/연인 (6.71)	직장상사 (4.54)	자녀 (6.86)	직장상사 (5.40)	자녀 (7.00)	직장상사 (5.68)
의미 있는	자녀 (6.30)	고객, 학생 (4.55)	자녀 (6.02)	없음-혼자 (4.69)	고객, 학생 (6.41)	없음-혼자 (5.39)	자녀 (6.22)	다른 친척 (4.79)
피곤한	고객, 학생 (7.48)	친구 (4.57)	직장상사 (6.36)	친구 (4.49)	고객, 학생 (5.85)	배우자/연인 (4.41)	직장상사 (4.86)	친구 (3.54)
스트레스 받은	고객, 학생 (6.94)	배우자/연인 (2.87)	직장상사 (5.57)	다른 친척 (3.07)	고객, 학생 (5.35)	배우자/연인 (3.19)	부모 (4.38)	친구, 자녀 (2.76)
슬픈	직장 동료 (3.17)	자녀 (1.57)	직장 동료 (3.35)	다른 친척 (1.80)	부모 (3.50)	자녀 (2.19)	부모 (3.90)	자녀 (2.28)
고통스러운	고객, 학생 (4.68)	자녀 (1.48)	고객, 학생 (3.64)	다른 친척 (2.07)	다른 친척 (3.42)	자녀 (2.09)	부모 (3.57)	자녀 (2.30)
외로운	없음-혼자 (3.19)	배우자/연인 (1.57)	고객, 학생 (3.49)	다른 친척 (1.47)	부모 (3.80)	자녀 (2.21)	-	-
불안한	고객, 학생 (3.45)	배우자/연인 (1.81)	고객, 학생 (3.72)	다른 친척 (1.53)	부모 (3.37)	배우자/연인 (2.22)	-	-

4. 분석 결과



03 관계 -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	↓	↑	↓	↑	↓	↑	↓
행복한	배우자/연인 (7.08)	고객, 학생 (3.68)	배우자/연인 (6.71)	직장상사 (4.54)	자녀 (6.86)	직장상사 (5.40)	자녀 (7.00)	직장상사 (5.68)
의미 있는	자녀 (6.30)	고객, 학생 (4.55)	자녀 (6.02)	없음-혼자 (4.69)	고객, 학생 (6.41)	없음-혼자 (5.39)	자녀 (6.22)	다른 친척 (4.79)
피곤한	고객, 학생 (7.48)	친구 (4.57)	직장상사 (6.36)	친구 (4.49)	고객, 학생 (5.85)	배우자/연인 (4.41)	직장상사 (4.86)	친구 (3.54)
스트레스 받은	고객, 학생 (6.94)	배우자/연인 (2.67)	직장상사 (5.57)	다른 친척 (3.07)	고객, 학생 (5.35)	배우자/연인 (3.19)	부모 (4.38)	친구, 자녀 (2.76)
슬픈	직장 동료 (3.17)	자녀 (1.57)	직장 동료 (3.35)	다른 친척 (1.80)	부모 (3.50)	자녀 (2.19)	부모 (3.90)	자녀 (2.28)
고통스러운	고객, 학생 (4.68)	자녀 (1.48)	고객, 학생 (3.64)	다른 친척 (2.07)	다른 친척 (3.42)	자녀 (2.09)	부모 (3.57)	자녀 (2.30)
외로운	없음-혼자 (3.19)	배우자/연인 (1.57)	고객, 학생 (3.49)	다른 친척 (1.47)	부모 (3.80)	자녀 (2.21)	-	-
불안한	고객, 학생 (3.45)	배우자/연인 (1.81)	고객, 학생 (3.72)	다른 친척 (1.53)	부모 (3.37)	배우자/연인 (2.22)	-	-

4. 분석 결과



03 관계 -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 청년

- 청년에게 행복감을 주는 관계는 배우자/연인, 부모, 친구
- 행복감을 낮추는 관계는 고객, 직장상사 등 일자리에서 만나는 관계
- 배우자/연인은 모든 정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관계
- 직장상사보다 고객, 학생이 청년에게 피곤함과 스트레스, 고통을 주는 관계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배우자	1.397*** (0.236)	0.763** (0.245)	-0.523+ (0.273)	-1.225*** (0.271)	-0.876*** (0.238)	-0.818** (0.278)	-1.286*** (0.238)	-0.972*** (0.250)
부모	0.603** (0.221)	0.093 (0.226)	-0.109 (0.261)	-0.543* (0.260)	-0.265 (0.230)	-0.274 (0.271)	-0.321 (0.228)	-0.284 (0.241)
친구	1.322*** (0.282)	0.395 (0.291)	-0.859** (0.329)	-1.125*** (0.335)	-0.622* (0.315)	-0.732* (0.325)	-0.763** (0.295)	-0.667* (0.308)
고객, 학생	-1.708*** (0.431)	-0.477 (0.508)	1.849*** (0.377)	2.452*** (0.469)	-0.175 (0.523)	1.634** (0.545)	-0.051 (0.590)	0.623 (0.627)
직장상사	-1.025*** (0.254)	-0.326 (0.259)	0.783* (0.238)	0.854** (0.279)	0.031 (0.290)	0.473 (0.312)	-0.278 (0.290)	0.263 (0.302)
상수	5.585*** (0.221)	5.221*** (0.223)	5.338*** (0.251)	4.035*** (0.254)	2.794*** (0.227)	2.770*** (0.264)	2.863*** (0.227)	2.839*** (0.237)
N	2835	2835	2835	2835	2835	2835	2835	2835
adj. R-sq	0.074	0.026	0.031	0.065	0.024	0.038	0.039	0.027

+p<0.1, *p<0.05, **p<0.01, ***<0.001

4. 분석 결과



03 관계 -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장년

- 배우자/연인, 자녀, 친구는 모두 행복하고 의미있는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관계이며 피곤함과 스트레스, 외로움 등을 낮추는 영향
- 직장상사 및 동료, 고객은 반대 영향
- 장년층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하고 의미있는 정서를 약하게 경험하고, 반면 슬픔과 외로움, 불안함 등이 크게 증가
- 장년층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행복감과 의미를 찾아가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배우자/연인	0.715*** (0.131)	0.325* (0.156)	-0.462** (0.148)	-0.711*** (0.169)	0.026 (0.154)	0.041 (0.159)	-0.400* (0.155)	0.124 (0.159)
자녀	0.346** (0.130)	0.588*** (0.159)	-0.111 (0.166)	-0.103 (0.177)	-0.318+ (0.166)	-0.253 (0.173)	-0.239 (0.164)	-0.379* (0.176)
친구	0.975** (0.300)	0.730* (0.338)	-1.153*** (0.321)	-1.013** (0.370)	0.064 (0.341)	-0.448 (0.309)	0.094 (0.362)	0.195 (0.394)
직장 동료	-0.738*** (0.171)	-0.251 (0.191)	0.081 (0.194)	0.761*** (0.217)	0.888*** (0.213)	1.043*** (0.224)	0.541* (0.212)	0.816*** (0.224)
고객, 학생	-0.963** (0.331)	-0.057 (0.278)	0.253 (0.311)	1.116** (0.347)	0.595 (0.374)	1.054* (0.424)	0.721+ (0.388)	1.088** (0.396)
직장 상사	-0.660** (0.238)	-0.131 (0.262)	0.743*** (0.217)	0.806** (0.263)	0.094 (0.288)	0.412 (0.297)	0.403 (0.288)	0.365 (0.308)
없음-혼자	-0.484** (0.157)	-0.559** (0.187)	-0.140 (0.188)	0.094 (0.209)	0.747*** (0.195)	0.797*** (0.204)	0.821*** (0.196)	0.688*** (0.207)
상수	5.770*** (0.144)	5.250*** (0.172)	5.609*** (0.175)	4.194*** (0.195)	2.439*** (0.180)	2.336*** (0.188)	2.605*** (0.180)	2.389*** (0.192)
N	2546	2546	2546	2546	2546	2546	2546	2546
adj. R-sq	0.096	0.053	0.015	0.047	0.035	0.036	0.051	0.032

+p<0.1, *p<0.05, **p<0.01, ***<0.001

4. 분석 결과



03 관계 -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중년

- 배우자/연인, 자녀를 통해 행복한 정서를 경험
- 직장 동료나 고객 등이 행복감을 낮추는 것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일자리에서 맺게 된 관계들이 행복감을 낮추기는 하지만 청년과 장년에 비해 그 영향이 크지 않음
- 배우자/연인을 통해 의미있는 정서를 경험하는 것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자녀를 통해서만 효과가 나타남
- 가족이 행복한 정서를 경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부모가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특징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배우자/연인	0.515*** (0.130)	0.069 (0.149)	-0.370* (0.168)	-0.330+ (0.173)	-0.215 (0.167)	-0.170 (0.162)	-0.074 (0.160)	-0.271 (0.174)
자녀	0.602*** (0.112)	0.336** (0.128)	-0.043 (0.149)	-0.095 (0.148)	-0.385** (0.141)	-0.251+ (0.137)	-0.261+ (0.146)	-0.078 (0.144)
부모	-0.285 (0.180)	0.216 (0.201)	0.384 (0.267)	0.473+ (0.277)	0.941*** (0.285)	0.827** (0.274)	1.404*** (0.313)	0.932** (0.288)
직장 동료	-0.219 (0.152)	-0.127 (0.164)	0.362+ (0.196)	1.026*** (0.208)	0.398* (0.199)	0.600** (0.199)	0.565** (0.196)	0.519* (0.203)
고객, 학생	-0.192 (0.238)	0.586* (0.244)	0.968*** (0.278)	1.248*** (0.338)	0.084 (0.317)	0.348 (0.334)	0.154 (0.306)	0.152 (0.310)
없음-혼자	-0.243 (0.149)	-0.482** (0.166)	0.334+ (0.191)	0.618** (0.198)	0.463* (0.192)	0.571** (0.188)	0.977*** (0.189)	0.603** (0.198)
상수	5.925*** (0.139)	5.841*** (0.153)	4.770*** (0.181)	3.504*** (0.187)	2.657*** (0.180)	2.397*** (0.177)	2.435*** (0.176)	2.463*** (0.186)
N	3269	3269	3269	3269	3269	3269	3269	3269
adj. R-sq	0.060	0.024	0.019	0.046	0.026	0.026	0.043	0.024

+p<0.1, *p<0.05, **p<0.01, ***<0.001

4. 분석 결과



03 관계 -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노년

- 실증분석 결과에서 노년층은 행복감에 강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배우자/연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영향력이 약함
- 타 집단에 비해 행복감을 낮추고 피곤함과 스트레스, 슬픔 등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많은 것으로 분석
- 직장에서 만나는 관계와 고객 등이 행복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것과 별개로, 혼자 있을 때 행복감을 낮추고 슬픈 정서를 경험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
- 노년층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보다 혼자 있는지 여부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배우자/연인	-0.262+	-0.307	0.314	0.414+	0.636**	0.418+
	-0.153	-0.197	-0.22	-0.242	-0.212	-0.233
부모	-0.882**	-0.624	1.346*	1.669**	1.589**	1.071+
	-0.341	-0.451	-0.524	-0.579	-0.536	-0.621
직장 동료	-0.731***	-0.232	0.855**	0.971***	0.644*	0.636*
	-0.188	-0.22	-0.28	-0.294	-0.258	-0.276
고객, 학생	-0.626**	0.225	1.153***	1.508***	0.617+	0.595
	-0.199	-0.285	-0.331	-0.356	-0.343	-0.362
직장상사	-0.806**	0.288	1.028+	0.923+	0.498	0.236
	-0.302	-0.375	-0.529	-0.555	-0.45	-0.439
없음-혼자	-0.643***	-0.488*	0.442*	0.564*	0.727***	0.510*
	-0.156	-0.199	-0.223	-0.241	-0.213	-0.232
상수	4.004	7.365	19.189*	22.312**	16.213*	21.575**
	-5.258	-6.714	-8.133	-8.134	-7.589	-7.63
N	4404	4404	4404	4404	4404	4404
adj. R-sq	0.094	0.068	0.062	0.068	0.07	0.067

+p<0.1, *p<0.05, **p<0.01, ***<0.001

5. 결론



01 요약

언제 행복한가?

- 모든 인구집단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이 증가
-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험하는 행복 수준이 높음
- 의미있는 정서적 경험은 청년과 노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장년과 중년은 증가함
- 감소 추세가 가장 뚜렷한 것은 노년이지만 점수는 가장 높음
- 청년~중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 받는 경향이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만 증가
- 그러나 스트레스 정도는 노년층이 가장 낮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강해짐
- 피곤함 또한 스트레스 받은 정도와 같은 경향을 보임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 배우자, 연인, 가족 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정서를 가장 강하게 경험하고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가장 약하게 경험
- 일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경험
- 노년은 배우자/연인/가족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자녀, 부모의 돌봄을 통해 피곤함과 스트레스, 고통을 경험하는 복합적 결과
- 청년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일, 출퇴근, 몸단장 등 일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행복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침
- 장년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등 폭넓은 사회적 관계가 행복한 정서를 고양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
- 중년과 노년은 가족과 일 외에 부수적인 활동은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 배우자, 연인, 자녀 등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정서를 가장 강하게 경험,
- 가족과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가장 약하게 경험
- 직장상사, 동료, 고객 등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고, 피곤함, 스트레스, 고통 등을 많이 경험
- 중년은 가족이 행복한 정서를 경험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장 동료, 고객 등이 행복감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반대로 노년층은 배우자/연인이 행복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고, 행복감을 낮추는데 많은 관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5. 결론



01 제언

● 일과 삶의 조화

-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한국인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를 도출하면 ‘일과 삶의 조화’
-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이 주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족 및 친밀한 관계를 통해 받는 행복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해석
- 경쟁적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한국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 중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행복

- 활동,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발견
- 즉, 청년과 장년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모두 풍부한 반면, 중년과 노년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활동과 관계 자체가 축소됨
- 특히 노년층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보다 혼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중고령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이들이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확대해갈 필요

감사합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